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

일시: 2013. 8. 22. (木) 09:0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1층 대강당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속기사 이미경, 한아름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에 계신 분께 첫 번째 증인을 앞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증언을 해주실 분은 속히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신변 보호와 가족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고,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 김혁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정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주실 말씀이 진실 될 것임을 맹세하십니까?

○ 김혁

네, 맹세합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 성함이 김혁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32살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2000년 12월에 오신 것 맞습니까?

○ 김혁

이름은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날짜는 2001년 9월 14일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 12월 24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두만강을 마지막으로 중국 쪽으로 넘어갔을 때 시간입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제 선생님께서 북조선에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김혁

네, 저는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하는 북한에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1982년 1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4살 때 약 1986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95년, 6년경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7살 때인 1989년 이 때부터 꽃제비 생활, 부랑아 생활을 북한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13살 되는 해에 북한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제가 16살에 졸업을 하는데요. 그게 1998년 3월이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을 졸업을 하고 나서 한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일이 바로 임업, 채벌공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말이 되는 해, 1998년 11월에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비밀경찰, 북한의 비밀경찰에 잡혀서 처음 옥고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때 보위부에서 안전부라고 하는 북한의 경찰, 북한 경찰 쪽으로 신변이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서 1999년 9월에 3년형을 선고 받습니다. 3년형을 받고 나서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 제12교 화소라고 하는 곳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날이 2000년 7월 6일 낮 12시정도입니다.

○ 마이클 커비

어떠한 죄목으로 수감이 된 것인가요.

○ 김혁

그때 당시에 1998년 가을에 배가 고파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게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은 불법월경죄 117조 1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폐매매, 밀수 이 세 가지가 겹쳐서 각각 1년씩 합이 3년형을 받았습시다.

2007년 7월 6일에 나온 이후에 제가 도저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다시 두만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대한민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쪽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꽃제비 생활을 제외하더라도 고아원 생활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1997년에 북한에서는 9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가 확산이 됐었는데, 가장 1차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고아원에서도 지원이 늦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6년, '97년 이때부터 위기가 확산이 되는데, 1997년 여름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다 뛰쳐나간 상황에서 75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75명 중에 24명이 여름 한철에만 사망을 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도 그때 고아원에서 도망 나오셨습니까?

○ 김혁

아니오. 도망은 못 나왔습니다. 저는 밖에 나

가서 좀 훑쳐 먹고, 그리고 또 고아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혁

그래서 그때 당시 고아원 아이들이 24명이 죽었는데, 마른 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평균 7살부터 12살 정도 사이에 친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영양실조도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들이 죽으면 고아원 뒤편에 있는 살구나무 밑이 있었는데, 살구나무 밑 뒷산에다가 고아의 시신들을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있었던 병들이,

○ 마이클 커비

아이들의 시체가 각각 따로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 김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병명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열병,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음, 폐결핵 이런 병들이 먹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요.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아이들이 24명이나 됐습니다. 그때가 '97년 여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병을 앓았는데 물론 다 앓은

것은 아니고 열병,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먹지 못해서 오는 병이었지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학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주워 먹거나 훑쳐 먹거나 할 수 있었는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을 훑쳐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쉽게 주워 먹을 수도 구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죽었고요. 이게 '98년 여름에 봄부터 여름 사이에 여름 장마가...

○ 마이클 커비

잠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묘사해주신 그러한 환경이 기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기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따라서 정부가 그때 재빠르게 아무런 대처도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 김혁

사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그 당시에 아무런 손을 썼던 것도 없었고요. 식량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물론 외부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고아원들에 식량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다 먹고 나면 가운데 속대가 남는데, 그 속대를 말려서 가루를 췌습니다.

이 속대라고 하는 것은 옥수수 속대가 말려서 그렇게 음식이라고 해서 주면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데에다가 이것을 먹게 되면 변비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을 못 보고 사망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온 몸이 배출을 못하니까 퉁퉁 부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설사병을 앓는 아이들도 있었습니까?

○ 김혁

예, 설사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사병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영양분이 완전히 사라져서 영양실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설사병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먹으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 마이클 커비

식량과 관련해서는 고아원에서 식량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향상이 되어서 고아원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나요.

○ 김혁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전혀 고아원에도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96년, '97년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을 최대한 다 내보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고아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식량이 없으니까 밥을 못 먹이니까 '차라리 나가서 꽃제비라도 해라'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앉아서 굶어 죽이기보다는 애들이 나가서 차라리 꽃제비라도 해서 살아남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고아원 아이들은 가급적 집에 나가서...

○ 마이클 커비

고아원에 있었던 간부들이나 관리자들은 충분히 먹을 것이 있나요? 고아원을 돌보던 관리나 간부자의 가족들은 먹을 것들이 있었나요?

○ 김혁

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집안까지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창고장, 그 다음에 당세포 비서, 지배인 여러 가지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반장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기물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먹을 것들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친구들은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나무를 베어주고 대신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아원장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 김혁

제가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온라인에 얼마 전에 강의를 위해서 찾는 과정에서 저희 고아원 원장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 마이클 커티

고아원장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고아원장님도 이 기아에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혁

사실 원장은 피해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전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고아원 애들이 굶어 죽을 때, 죽어나갈 때 그 밑에서 당시에 의사 선생이라든가 몇몇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자기 집안의 식량을 꺼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느 정도 관료, 관직에 있었던 고아원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화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차피 경험하고 지나간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 마이클 커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까?

○ 김혁

그때 당시에 고아원 원장이 뭔가 할 수 있었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자체에서 지급하는 식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고아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일 시키고 본인의 사적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고아원의 경제위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위에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고아원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중국에 있던 재미교포가 그 고아원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돕겠다고 나섰던 분이 뭘 지원을 했냐 하면, 빵 공장을 고아원에다가 건설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라면을 고아원에 보내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간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런데 대부분 고아원 친구들은 먹지 못하다 보니까 속에 기름이 없습니다. 지방질이 없기 때문에 그 라면을 먹지 못 했습니다. 뭐 한 젓가락만 먹으면 다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못 들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빵공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진으로 찾아본 결과 2000년 대 이후에 제가 고아원을 나온 이후에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빵공장을 만

들어진다고 해서 고아원 아이들이 빵을 많이 먹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빵 공장이 건설이 되어도 재료가 없으면 결국 그 공장은 아무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종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쭙보면 우리 고아원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전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먹을 것도 조금 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죽하고 옥수수 국수로 계속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다시 북조선을 떠나기로 했나요? 117호를 어기고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조선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 김혁

예. 제가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감옥 안에서 3년형을 받고 살아남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그 안에서 많이 죽어나가고 제가 감옥에 들어갈 당시에 전체 음성군에서 나온 죄수, 저랑 같이 간 죄수가 12명, 그 다음에 다른 무산군이나 청진에서 오는 죄수 12명이 합쳐서 24명이 들어갔

습니다. 그때 한 날 한 시에 24명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2000년 7월 6일에 살아나온 사람은 2명밖에 살아남지 못 했습니다. 나머지 22명이 그 안에서 사망을 했었고요.

제가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게 된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나가면 부모님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집도 없고, 누가 나를 먹여줄 사람도 없다고 하는 환경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대한민국으로 탈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살아남게 됐고, 살아남아서 그것을 실행을 옮기기 위해서는 제 몸을 회복을 시키는 게 우선이었고, 그래서 7월 6일에 퇴소가 되고 나서 8월 11일날 제가 두만강을 처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있었던 지인 분들을 만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영양 보충을 좀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하나하나 세부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몇 달에 걸쳐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에 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 김혁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는 ‘아,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내건 조건이. 북한에서 감히 상상도 못 했었고, 중국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화려한 인천공항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굉장히 건물이 멋있고 화려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지요.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 건물을 통해서 직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얼굴들이었고, 감히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상상 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사회 내에서 서로 감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 항상 어둡고 상대를 항상 경계를 하는 눈치였는데, 대한민국에 딱 들어서서 공항에 들어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못 느끼겠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밝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내가 길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것을 이제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니까 '여기는 진짜로 천국이다', 행복한 사람들, 친절하고 그 다음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곳, 그래서 나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대한민국에 나와서 한동안 주변에 많은 남한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는 '아, 여기는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고 난 후에는 무슨 일들을 하셨지요?

○ 김혁

처음에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저는 엄청난 모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정착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못 떠나기는 했었지만 저는 그 돈을 들고 3개월 동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전부 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쓴 돈이 무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고요. 그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돈을 순식간에...

○ 마이클 커비

한국에 오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 김혁

19살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지금 이런 증거를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선 꽃

제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고아원에서의 기아 상태, 그리고 집결소 같은 곳에서의 고문, 그리고 음식 찾기 어려운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배우기 위한 것인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맞지요?

○ 김혁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또 북한과 한국에서 삶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 김혁

예.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됐지만 한국어로는 지금 책을 쓰신 게 하나 있지요?

○ 김혁

예,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책 때문에 꽤 널리 알려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

책 덕분에 유명해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혁

예.

○ 마이클 커비

자, 그렇다면 그 꽃제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제비 시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시는 하셨는데, 꽃제비가 되었을 때 나이, 끝났을 때 나이, 그리고 그동안 알게 된 꽃제비 아이들의 숫자 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혁

제가 꽃제비 생활을 처음 시작 했던 때는 7살 때 1989년이었습니다. 그대 당시에 꽃제비 생활을 할 때는 북한 사회가 어느 정도 식량 위기를 겪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저하고 형하고 둘이서 밖에 뛰쳐나간 거지요. 당시에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진역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청진역전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주워 먹고, 그때 당시에는 주워 먹는 것보다도 구걸하면 사람들이 쉽게 음식물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먹고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기차역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 청진시에 보게 되면 간부 사택이라고 해서 간부들만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주변에

가면 먹을 것들이, 상한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 주워 먹을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주워 먹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당시에 꽃제비 생활이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경찰한테 잡혀서 또 집에 복귀했다가 집에서 또 뛰쳐나오고 이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 됐습니다. 그게 '94년까지입니다. 그리고 '95년에 잠깐 있었는데, '95년 같은 경우는 제가 고아원을 가면서 꽃제비 생활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꽃제비라고 하는 친구들 그 사이에서...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렇게 꽃제비가 된 것은 한마디로 집에서 충분히 음식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또 새어머니하고 잘 지내지 못해서 꽃제비가 되신 것도 이유인가요? 꽃제비가 된 것은 실제로 그 이유 아닌가요?

○ 김혁

맞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희한테 크게 와 닿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형이 먼저 집을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형을 따라서 뛰쳐나간 게 그때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 사회에는 기본

적으로...

○ 마이클 커비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꽃제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단속반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반사회적인 꽃제비 아이들을 잡아서 집으로 보낸 것 맞나요?

○ 김혁

'8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게 바로 '비사그루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비사회주의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실제로 중앙당에서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을, 비사회주의적인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일 때 대한 어떤 중앙당의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이 실제로 내려와서 가장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꽃제비를 잡는 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꽃제비라고 하면 방랑아, 부랑아라고 표현을 북한에서 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시기였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전에 꽃제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꽃제비들 중에는 몇 년 이상을 꽃제비 생활만 7살 당시에 쪽 해 왔던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꽃제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그 꽃제비 생활을 하게 된 계기 자체는 새어머니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나왔었고요. 실제로 꽃제

비 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도 처음에 나와서 형하고 헤어지고 나서 만난 꽃제비들은 한 7명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땅에서 주워 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밤에는 같이 모여와서 잤었는데, 이게 겨울 같은 경우는 북한은 영하 24~27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동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리 잘린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얼어서 죽은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북한 정부 쪽에서는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꽃제비 생활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그냥 잡아서 무조건 집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을 봤는지요?

○ 김혁

처음에는 이제 비사그루빠가 그래서 꽃제비들 잡아서 집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청진 역전 분주소 감옥에 넣어놨다가 부모님들이 찾으러 오면 보내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997년대에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97상무조'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97상무조 같은 경우에는 꽃제비들을 잡아서 보면은 실제로 꽃제비들한테는 부모들이 없거나 집안 자체가 많이, 거의 파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꽃제

비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내줬던 게 구제소 혹은 구호소라고 불리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구제소라고 부르는데 사실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어디 보낼 때 없으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굶어죽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잡아다 놓으면 다 앉아서 죽는데 그냥 꽃제비 생활로 풀어놓기만 하면 애들이 다 살아난다는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결국은 고아원으로 가셨고, 고아원에서 몇 년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혁

제가 고아원에 가서 '95년부터 '98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95년 12월 정도부터라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때 바로 북한에서는 대기아가 있었던 거지요?

○ 김혁

그렇습니다.

○ 마이클 커비

또 말씀을 해 주신 것이기는 한데, “그때 받은 음식이 굉장히 작았다. 양이 작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음식 양이 작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아원에서조차 굶어죽은 아이들이 있었나요?

○ 김혁

고아원에서는 굶어서 죽은 친구들은 많지는... ‘굶어서 죽었다, 기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꽃제비, 고아원 친구들은 다 결정적인 이유는 기아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먹을 게 없으니까 옥수수 속을 말려서 가루 내서 준 거고요. 그거를 이제 위로 삼아서 먹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먹게 되면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계속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조금 나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를 먹게 되면 본인이 영양실조가 빨리 진행되고 결국에는 본인도 죽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 고아원을 떠나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잡혀서 다시 북송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교화소 12호인가요? 그쪽으로 가신 거 맞지요?

○ 김혁

중국에서 실제로 잡힌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잡힌 것은 북한에서 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중국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밀고해서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회령 전거리 제12교화소를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고아원을 공식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의 이제 교육체제가 바뀌면서 그때 당시에 원래 8월 졸업, 9월 입학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3월 졸업, 4월 입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생일도 어리고 학교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나이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저는 앞당겨서 졸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일하러 갈 때도 미성년 노동자로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3년형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소에서 공식적인 재판은 못 하고요. 경찰서에서 이제 비공식재판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가 고아라고 하는 점, 이게 작용이 돼서 비공식재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재판소에는 누구, 누구 있었어요?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 재판에는 누가 있었나요?

○ 김혁

소장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소장, 판사, 검사

그 다음 변호사 이렇게 네 분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방 안에서 법 위반과 관련된 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장이 이제 변호사한테 마지막 변론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것, 고아라고 하는 점 이 두 부분을 감안해서 선처를 요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마디를 딱 하고 재판은 3년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게 정말로 그 3년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3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게 심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변호사가 요구한 것처럼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 김혁

이미 ‘애는 3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뻔히 형식적으로 다 주어진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고아고 해서 뭔가 특별히 감형을 해 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작용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거를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굉장히 걱정이었고요. 감옥에 가면 일단 너무 많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때 당시에 앉아서 딱 들었

던 게,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셨지요?

○ 김혁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저는 체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이 체구는 대한민국에 와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때 당시의 체구가 약 키가 제가 교화소 정문을 2000. 7. 6. 나설 때 몸무게가 35kg이었습니다. 그리고 키가 149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만큼 적은 양을 먹고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사망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집에서 면회를 올 수 있다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누가 나한테 면회를 저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든지 이제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화소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도마뱀도 있고, 뱀, 쥐 어쨌든 산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파충류든 뭐든 다 저희는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육류였고요. 1월 달에 봄이 되면 풀을 먹어야 합니다. 봄에는 풀독이 올라서 잘못

먹으면 부종이 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박새풀이라고 하는 독풀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캐먹은 게 우엉 뿌리나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경우도 많이 캐먹었고요.

○ 마이클 커비

그때 쌀을 얼마큼 받으셨어요? 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었고, 그게 충분하셨어요?

○ 김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교화소 안에서 줬던 밥은 이 종이컵 거의 한 이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교화소 안에서는 '가다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컵 같은 것은 것을 가지고 실제로 밥을 찍어서 주는 겁니다. 이 안에 옥수수를 통옥수수나 쪽정이 옥수수를 솥에 개어 같이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두부콩을 섞어 넣습니다. 두부콩은 50알에서 90알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가다밥을 먹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부콩 50알에서 90알을 먹고 버티는 겁니다. 그 콩 안에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몸이 굉장히 왜소해지고 교화반 저희가 47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한 4~5명 정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영양실조 2도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장히 먹을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어려웠고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여타적으로 준 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이렇게 음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으세요?

○ 김혁

문제제기는 곧 재범의 원인이 됩니다. 재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면 당국에서 규정해 준 것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의미로 간주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재범을 받게 되면 지금은 3년이지만 그 안에서 이거는 당에 대해서, 혹은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가형을 받거나 아니면 정치범수용소에서 정치범으로 취급을 받아서 수용소로 갈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감히 반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반발하면 그렇게 가형이 된다는지 다른 곳으로 보내진다는지 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 김혁

그때 당시에 북한 내에서는 실제로 함부로 아무 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이 한마디

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내에 주민들한테 다 익히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옆집의 누군가가 '북한 망해라.'라고 해서 중국에서 한마디 했다가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생똥맞게 갑자기 북한에 잡혀 들어와서 그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김일성, 김정일 앞뒤에 존칭어를 붙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도 저희는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반발을 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본인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어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지요? 그때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했었나요?

○ 김혁

저는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일단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존경심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뭔가 '존경심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실제로 '땀다.'라고 생각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는 그

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중간 관료들이 다 가운데서 빼먹어서라고 이제 저희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학교생활, 그 다음에 조직생활, 통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어떤 호감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한국에 오셨을 때 학교에서 특별히 강연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요?

○ 김혁

처음에는 그냥 배고파서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배불리 먹고 살기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생활해가는 과정에서 북한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남한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북한에서 살아 나왔을 때 뭔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인권활동이라든가 대학교 강의 같은 것도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북한에서 어쨌든 아버님도 사실 1996년에 제가 돌아가신 시신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는 형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북한사회에서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살아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한 게 결국에는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이 제가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러한 강연들을 하고 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왜냐 하면 남한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남한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혁

관심을 두지는 못하지만 호기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관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어쨌든 경쟁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의 일들을 관심가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강의를 가서 사람들에게 북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설명을 하고 나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저

희가 20%, 30% 정도를 변화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을 제가 조사를 다 해서 데이터를 축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육을 한 번 받고 나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실제로 통일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께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 김혁

제가 통일이 된다면 전제 조건이 통일이 됐다고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그렇지만 고향을 한 번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요. 어릴 때 같이 놀았던 곳, 어릴 때 같이 뛰놀던 친구들 솔직히 다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향에 올라가겠다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원래 고향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던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통일 됐을 때, 체

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가 됐을 때는 저는 당연히 북한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 마이클 커티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이 선생님께 일어날까요?

○ 김혁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물론 그 가치가 떨어지면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공개로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티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동료들이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증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께 선생님이 지나오신 경험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친척 분들이 북한에 계시나요?

○ 김혁

예, 계시는데 유일하게 저희 고모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식량 위기로 인해서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식량 위기로 인해서 굶어서 돌아가셨고, 저희 사촌들 몇 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사촌 형제들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렇게 여쭙보는 이유는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은 혼자가 되셨고, 고아가 돼서 꽃제비가 되셨습니다. 꽃제비가 되었을 때 친척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나요? 왜 친척들에게 안 갔지요?

○ 김혁

사실 뭐 친척 집에 찾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척집에 찾아가겠다고 해서 친척들이 저희를 받아서 같이 생활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친척집도 실제로는 먹을 것들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척 집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하루 이틀 정도만 머물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여쭙볼게요.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친구들이 수용소라든지

교화소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 김혁

예, 저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경험은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교화소가 있다, 수용소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용소를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정치범 교화소가 있고 수용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요?

○ 김혁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반 주민들이 수용소가 있고 관리소에가 있고 교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교화소라든가 관리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나요?

○ 김혁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관리소 한 번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 다음에 관리소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절차 같은 것들도 없고 하룻밤 사이에 옆집이 사라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통째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물도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 옆집이 정치범 관리소로 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느낀 거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옆집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얘기는 바로 온 집안이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저희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탑공아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감옥에 들어가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화소 안에서 어느 정도 햇빛 보면서 일을 하는 게...

○ 마르주키 다루스만

면식이 뭘니까? 면식이 필요하다고요?

○ 김혁

면식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넣어주는 식량입니다. 교화소 내에서 밥 이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보내주는 면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었어요. 면식이 있으면 면식을 꾸준히 넣어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면식을 한 달 동안 주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안 해줘버리면 그 사

랍은 한 달 안에 사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저 같은 경우는 면식 자체가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안 뒀고요. 실제로 면식이 있었는데 죽었던 사람들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번 달에는 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 달에는 안 오니까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지치다가 결국에는 병방으로 옮겨가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 교화소라든지 관리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알았나요? 몇 살 때 알았나요?

○ 김혁

제가 9살 때 처음 총살을 봤습니다. 사형하는 것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형할 때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라고 했었지만 정치범 수용소, 청진에 정치범 수용소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범 관리소라고 얘기하는데, 그 관리소에 관계자들이 나와서 사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치범 수용소 이름 공식 명칭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9살 때였고요. 실제로 2명을 총살을 했었고, 거기에 총알이 나무에 박힌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좀 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된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시지요?

○ 김혁

북한은 어릴 때부터 조직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는 학교를 가겠지요. 학교에 가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조직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년단이라고 하는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소년단 이후에는 사로칭이라고 하는 조직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조직 생활 핵심은 '조직생활 총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직생활 총화는 매주 마다 2회 정도씩 진행이 되는데, 그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잘못에 대해서 모든 학급이 전체가 모여서 서로를 비판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저 친구가 잘못된 것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생활 총화 공간에서 본인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서로 감시를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한 꾀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감시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저 친구가 뭘 잘못 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상호 자연스럽게 스스로 감시하는 형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아까 통일이 된다면 북조선에 돌아가서 고향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북조선을 떠나고 싶어 하나요?

○ 김혁

사실 고향을 떠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쪽 살아왔던 환경을 한 번에 뿌리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참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굶어죽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한편에서는 배고프니까 중국이라도 가서 식량을 가져오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회를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심적인 변화가 발생해서 ‘아,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면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 안 떠나지요?

○ 김혁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얘기하면, 첫 번째 측면은 저 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내가 내 살길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탈북자

들이 본인의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그때 당시 식량 위기 당시에 가족이 전체가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데 이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차라리 입 하나 던다는 심정으로 집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유지가 되도록. 그런 경우에 나가서 뭔가를 가져다가 집을 다시 재생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을 나와서도 식량을 가지러 나옵니다. 중국에 와서 식량과 돈을 구해서 다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돕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중국의 단속도 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숨어 살 수는 있을지언정 계속 단속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오래 버틸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아예 대한민국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돈을 가족들한테 보내자’ 이게 탈북자들이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는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북조선 인민들을 돕고 싶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체제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김혁

제 고향과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이라는 이미지

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정치체제를 떠나서, 일단 제가 살았던 제가 경험했던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북한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쓰셨지요? 그 책을 쓰시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하게 되었지요? 체제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고 북한 체제를 다른 나라의 체제들과 비교를 하셨는지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 김혁

사실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북한 정치체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체제를 떠나서 사회라고 했을 때 통제 사회, 그리고 집단주의 체제라고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집단에 의해서 어쨌든 개인은 희생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조가 북한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이나 권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동의 자유, 아니면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부다 집단주의에 의해서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많이 이

해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북한 사회 내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북한, 그냥 독재체제 이렇게만 본다면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통제사회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까처럼 서로를 감시하는 형태, 그리고 처벌 수위도 실제로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떠한 처형 방법까지 동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통제체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통일교육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 소냐 비세르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기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사망했나요?

○ 김혁

그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대략적인 숫자를 파악할 만큼 큰 관료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단순히 경험한 것은 그랬습니다. 청진에서 그때 당시에 청진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꽃제비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습니다. '90년대, '95년, '96년 이때 당시에 꽃제비가 거의 한 청진역에만 해도 한 2~300명 정도씩 모여 있었습니다. 꽃제비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들이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에는 '90년대 초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가 이제 빛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다 집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시꺼멓게 변했었습니다. 오히려 영화에서 나오는 한 장면처럼 굉장히 죽은 도시같이 창문이 다 빠지고 집들이 이제 다 그을려서 시꺼멓게 도시가 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실제로 이제 아마 위성사진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청진 주변 산을 뒤져보면 그 주변 산이 전부 다 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부분을 많이 확인을 못 하셨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역질문이 와서 제가 그거를 일부러 찾아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진 시내 주변의 산들을 보면 전부 다 묘들이 뒤덮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 소냐 비세르코

북한 사회가 집단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속력이 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있었고, 또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북한 사회가 사회주의, 집단주의사회일까요?

○ 김혁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집단주의라고 본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집단은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집단을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 자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를 위해서 집단이 뭔가 소모한다고 하는 측면은 역설적이게도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전 국민이 본인들의 어떤 권리나 이익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집단을 위해서 하나가 포기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주민들이 본인 하나가 결국에는 집단을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으로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제가 집단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집단주의가 결속이 잘 됐다, 그것은 이제 '90년대 이전 얘기였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도 경제위기로 인해서 약화됐

다, 그러나 그 구조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파괴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더 이상은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한다고 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협력하는 정도에 그냥 그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소나 비세르코

이렇게 기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결속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해체가 됐다고 봐도 맞을까요?

○ 김혁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번에 그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식량지원이 다시 된다고 하면은 이 체제가 다시 집단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사회적으로도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식량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장사도 하게 되고, 그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나 혹은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생산활동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에서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데

요. 그 자유에 대한 부분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가 다 체득을 했습니다. 만약에 식량이 다시 재개가 돼서 식량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먹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형식적으로 접근하던 집단주의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그게 이제 다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소나 비세르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는 주민들 사이에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런 불만 표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고 이런 걸 체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단 한 번도 정권이나 이런 당국에 대한 반항, 저항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 김혁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에 함경북도의 육군단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도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함경북도를 지키는 육군단이라고 하는 1개의 군단이 있었는데요. 그 군단의 군단장을 비롯한 핵심 권력층 4명 정도가 이제 취합을 해서 평양을 치자라고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이미 파악했던 북한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해서 육군단이 해체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례 같은 것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그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사이에서 저항이 못 일어난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경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혁명을 하거나 어떠한 데모를 해 봤거나 그런 저항적인 어떤 활동적인 분별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 통제 하에서 공산주의적인, 혹은 이념사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미 저항적인 어떤 요소들이 극도로 이제 제한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제라고 하는 부분, 감시, 그 다음에 처벌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들도 전부 이제 저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조직해서 이렇게 저항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지는 않을까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생존, 그러니까 가족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 김혁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의식상징, 처벌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북한이 그동안 교육시켜왔던 내용에도 굉장히 초점을 맞

출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식량위기는 외부의 어떤 압력,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떠돌았던 얘기들 중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식량을 못 들어오게 경제봉쇄를 하고 있고, 그런 정책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90년대 말 정도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랫동안 경제위기가 발생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용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장마당을 완전히 폐쇄하고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하면 분명히 불만이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불만이 커져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취했던 게 장마당을 그냥 눈감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장군님이 이렇게 장마당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줬구나.'라고 하는 어떤 기대심리를 그걸로 충족을 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다른 나라들이 어떤 조취를 안 취하면 북한 정권에서 타할 수 있는 어떤 상생의

나라를 만들어낼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을 탓하고 있는데 만일에 다른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딱 꺼버리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런 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혁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항상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상대를 끌어내서 만든 것...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미국을 그렇게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붕쇄가 결국에는 북한에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식량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했는데 ‘96년도인가 ‘94년, ‘95년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역설적이게도 청진항에 미국 식량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식량이 배로 들어와서 제가 한 개의 그 식량, 밀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밀쌀을 훔치러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혼돈스러웠는데, 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는데 식량이 들어왔습니다. USA라고 딱 찍혀서 들어왔습니다. 미국 깃발이 딱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당시에 먹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향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하시는 데 성공이 있기를 기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가서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의 본명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변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본명을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지성호

예.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지성호 선생님이시고, 북조선에서 태어나셨고, 2006년 북조선을 떠나서 한국, 남한에 오신 것이 맞습니까?

○ 지성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 이전 2006년 10년 전에 아주 심각한 사고를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성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의 장애가 있다고 해서 증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경험을 말씀해 주시고, 북조선에서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성호

일단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시 학포탄광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1982년도 출생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국군포로병이라든가 내지는 6. 25전쟁 당시 개성이라든가 미수복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추방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었지요. 어렸을 때 환경이랄까요. 그냥 기억나는 것은 탄광이다 보니까 탄무지가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2남1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여섯 식구가 북한에서 생활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하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고생

하던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는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부모님을 도와서 함께 다녀야 했었고요. 살기 위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살아남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다니셨는데 1990년대 중반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 지성호

그때 당시는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14살, 13살부터 식량을 구하는데 부모님들을 도와야 했었고요. 내지는 친척집에 가서 식량을 구해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집안의 생계를 돕는다든가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부터는 어떻게 1996년 3월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성호

일단 앞에서 제가 태어난 곳이 탄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이렇게 하던 당시에 저희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저 있다 보니까 정말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껍질을 먹고는 살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석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력난이라든가 북한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제가 생활하고 있던 학포탄광에서는 석탄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전기가 없어 물을 펌프로 빼내지 못하다 보니까 모두 물에 잠기고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 북한 22호 정치범 관리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석탄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생산된 양이 1200t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화물열차 10량 짜리 60t 화물열차 2편씩 생산되어서 매일 청진 화력발전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팔려고 해도 제가 살던 곳에서 회령시까지 나가기는 열차로 1시간 내지는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소요 되는데요. 정치범 관리소에서 나오는 석탄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회령시, 회령역에 가는 도중에 석탄을 퍼 담아서 그것을 시내에 나가서 팔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것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석탄이 이동되는 과정에 많이 손실이 되다 보니까 북한 무장한 군인들이 명령을 받고 호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 당하던 1996년 3월 7일 그날도 낮에 화물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퍼 담으면 군인들의 눈에 띄게 되고 또 그러면 총개머리나 이런 것에 매를 맞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

열차에 몰래 숨어서 석탄을 퍼 담고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당시 제가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의 기억으로는 하루 정도를 굶고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퍼 담았던 것 같은데요. 회령역 거의 들어가던 상황에서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화물열차가 제 몸을 지나갔고 왼쪽 다리가 열차에 잘려서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당시 너무 아프고 당황하고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고향을 지르면서 그 다리를 손으로 지혈하려고 다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손도 왼쪽 손목이 일부분이 열차에 같이 잘려서 그쪽으로도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내는 고향 소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회령시내 국경 넘어 중국 땅까지 울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고향을 질렀지만 참 아속했던 것은 저만 화물열차에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도 열차에 타고 석탄을 팔러 나가는데, 저희 고향을 보면서 저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었고, 저를 타고 넘어가서 자기가 구해온 석탄 자르러 뛰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00명이 넘는 사람이 화물 열차에 매달려서 석탄을 퍼 담고 내렸는데, 저를 도와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30분 정도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철도 관계자가 지혈

을 시켜줬고, 역에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고 상상하기는 싫지만 그 상황을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래서 석탄을 퍼 담던 그 상황 그대로였다 보니까 피와 석탄가루가 범벅이 되었고, 제가 보 기에는 정말 어떻게 너무 처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가 새벽 3시경 그 령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 을 해야 되는 마취제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핀이 라는 주사약을 북한에서는 수술용으로 많이 쓰는 데요. 그것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는 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약물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겪었던 것 같고요. 수 술장으로 들어갈 당시 그 다음에 수술을 하던 당 시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다면 수술장에 있는 도구, 수술도구들...

○ 마이클 커비

수술을 어디에서 받으셨나요? 왼쪽 손목과 왼 쪽 발을 수술 받으셨나요?

○ 지성호

예, 그렇습니다. 수술은 회령시에 있는 회령제 1인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술을 받

게 되었고요. 수술을 받기 이전까지는 그냥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살가죽이 좀 붙어 있어서 매달려 간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곳에 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하는 과정에 수술 도구로 살 일부를 떼어낸다고...

○ 마이클 커비

마취제가 없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때 응급 처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 지성호

일단 사고 현장에서는 불만은 언제 가질 그런 여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것에 일단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장에 들어가서 상황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 마이클 커비

지금 돌아보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마취제 모르핀을 받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았 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왜냐 하면 선생님 얘기만 들으면 새벽3시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도 빨리 응급처지를 받은 것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그렇게 느끼는데, 더 빨리 더 많은 처치를 그때 당시 받았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시나요?

○ 지성호

예. 그렇지요. 다른 그런 병원 쪽의 대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병원에서 수술환자가 제기되면 바로바로 와서 수술한다든가 밤에 자는 시간에 깨어나서 온다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으로는 수술장으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있고, 시간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수술을 안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왼쪽 팔의 부상을 당한 곳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디를 다치셨죠? 왼쪽 팔의 어디를 다치셨죠? 어느 부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성호

열차는 저의 손을 지나갔는데요.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 빼놓고 세 마디가 이렇게 열차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오니까 그냥 손목 관절부위를 뽑고 그냥 봉합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였고, 지금 현재 제가 왼쪽 손을 착용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끼울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 보이는 것은 상당히 피부 색깔도 자연스럽고요. 상당히 잘 처치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보철을 북한에서 좋은 것으로 끼워줬나요?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피부 색깔도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거든요.

○ 지성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북한에서 수술 받고 봉합한 상태는 이제 이 상태고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생활했었고, 이 상태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서 보조기구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셔서 지고 그래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일반 친구들도 그냥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나가면 진짜 손인지 가짜 손인지 구별 못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보조 보철을 안 끼워줬나요?

○ 지성호

북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시에 교정기구, 보조기구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조금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

런데 '90년도 들어서면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그곳으로 가서 보조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도 급했지만 그곳에 가서 만약 이제 한다고 하면 돈을 내고 줄을 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요. 그동안 숙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한에서 보조기구를 할 그런 엄두는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탈북해서 넘어올 당시까지도 보조기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넘어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오늘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대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되어 있을 때의 상황과 식량난,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겪었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맞습니까?

○ 지성호

네,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북조선에서는 어떠한 차별을 겪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험에 기반해서요.

○ 지성호

일단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 굶어죽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살아가기는 엄청 어려웠죠. 위에서도 정말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이제 부모나 보호자가 포기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굶어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살던 곳의 주민이 1만 5천 명 내지는 2만 명이 생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던 분들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이라든가 저처럼 지체장애인이라든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90년대 중후반 식량난이 조금 나아질 당시 2000년도 그때 들어서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결국은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다 굶어죽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사회 시스템 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식량을 배급 못 하는데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사회의 분위기가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남한에 와서 많이 놀란 부분이 장

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배려였는데요. 북한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는 이제 보조기구 병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놓은 것이 정부고, 그에 대한 책임 그것을 지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편견과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거기서 이제...

○ 마이클 커비

어떠한 편견이 있었나요? 북조선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어땠나요?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편견이 있나요?

○ 지성호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쓴다면 북한에서는 '불구자' 내지는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병신' 내지는 특정 부위를 지칭한 그런 별명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 동네에도 있었는데 저처럼 손이 없으면 '조막손'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이제 예를 들어 맹인이면 눈을 못 본다든가 말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비화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사람을 부르는 것도 일반적으로 부

르기는 이름보다는 그냥 '누구네' 하면 예를 들어 '조막손네' 하면 통할 정도로 사회가 일반 주민들의 시각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도 사고가 나기 전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 지성호

네, 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10대 어릴 때고 하니까, 어른들이죠. 장애인들을 놀리고 저희 학급 친구들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놀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그러한 입장을,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 지성호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상황이 돼 보니까, 저도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저의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도 그런 시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최근에 북조선의 정부가 UN의 장애인협약을

바로 잡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지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보시기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성호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들의 인권이 개선되려면 일반 주민들이 살아가는 문제부터 그들의 인권이 풀려야, 어느 정도 성숙돼야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인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대우를 해 준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조선의 정부가 이 국제사회에 노력을 함께 해서 장애인을 가진 분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믿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 지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북한은 지금

도 자기는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지금 다 잘 해 주고 있다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일에 싸여진 북한의 내부, 그거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밖에는 알 수 없고 그것이 북한의 언론 통제든 뭐든 자유를 억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희 같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볼 때는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중국을 거쳐서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험들을 하셨는지요?

○ 지성호

제가 중국으로 처음 불법으로 넘어갔던 시기는 2000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굶어죽고, 또 저희 가족도 굶어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굶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또 저희 주변 사람들도 중국을...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굶어죽은 가족이 누구셨죠? 누가 있었나요?

○ 지성호

제가 이제 교통사고 당하기 전이죠. 1995년도에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이제 굶어서 죽기까지 갔고요. 굶어서 죽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체험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주는 식량 배급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식량이 단절되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갖고 있던 집기들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또 그것을 팔아서 한 달인가 아마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방법이 없고 주변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돌려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95년도 겨울로 생각됩니다. 들에는 풀도 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껍질을 벗겨서 먹고 들판에 가서 겨울 묵은 배추 뿌리를 캐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풀과 나무껍질만 먹고 살 수 없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가정의 할머니이나, 저희는 다 그런 최악 해 갖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중국에 처음 가신 게 언제라고 그러셨지요?

○ 지성호

처음 간 것은 2000년도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왜 계속 중국에 안 남아계셨어요? 아니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노력은 안 하셨나요?

○ 지성호

저희가 굶고 이렇게 할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이 곧 이어루질 것이고, 일시적인 고난이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기다렸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중국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으로 2000년도에 탈북하게 되었고, 그것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런 탈북이 아니었고 당분간 중국에서 식량을 구해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서 가족들 생계에 보탬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대접이 북한과 중국 사람들이 대접하는 게 다르던가요?

○ 지성호

일단 제가 중국 넘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불쌍해했지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돼서 살고,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걸하러 왔으니까 사연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들은 북한 정치체제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편견은 갖지 않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어쨌든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지성호

예.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와서 집에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국경에서 저희 집이 4km 정도가 되는데, 집으로 와서 집에서 북한 경찰관들한테 체포당했습니다. 중국 갔다 넘어온 것이 현장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지요?

○ 지성호

체포 돼서 가져왔던 물품들을 다 다시 둘러매고 북한 경찰소로 갔습니다. 가서 취조를 받았는

데 일단 처음에 물어보는 것은 '중국에 넘어가서 남한 라디오라든가 채널 매체를 접했냐, 또 '중국에 넘어가서 남한 선교사라든가 기독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냐' 그런 것들 내지는 '중국 넘어가서 남한 사람을 접촉한 적이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취조가 먼저 시작 됐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지요?

○ 지성호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넘어갔는데 왜 그런 것을 보지 않았냐' 이런 취조가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매도 좀 맞았고요. 일단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더욱 제가 힘들었던 것은 장애인으로서 정확한 그때 그 사람의 용어를 쓰자면 병신 돼가지고 거지같은 꼴을 해가지고 중국에 넘어가서 식량을 구걸하러 빌러 다니면 북한 공화국의 국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외신 언론이라든가 대한민국 카메라에 잡히게 되면 북한을 정말 못 사는 나라,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고문이랄까요. 매를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 취조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 했을 때 뭐라고 답하셨어요?

○ 지성호

억울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것이 북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북한 체제가 나 개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항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좋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만약 거기에서 뭐라고 더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고문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원래 오른손잡이세요? 왼손잡이세요?

○ 지성호

저는 원래 오른손잡이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오른손은 괜찮네요? 사고 때문에 오른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없는 거지요?

○ 지성호

예. 1차 잘릴 때 왼손만 열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오른손과 오른 다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

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왼쪽 다리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나요?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일하는데 왼쪽 다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 지성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육안적으로 보 조기구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일할 수 없는 신체조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노동력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저는 북한 일반적인 회사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체포가 되고 취조를 받고 고문 받은 다음에 감옥 같은 데로 보내졌나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왔나요?

○ 지성호

감옥으로 보내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신체적인 구조 상황이 아니었고, 또 제가 다시는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한 번만 봐달라고 많이 사정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집으로 오셨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중국으로 다시 가지지 않았나요?

○ 지성호

그 이후에 한 번 더 갔었습니다. 갔었고 그것이 2002년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한 번 몰래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2006년에 최종적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전에 아버지가 중국으로 도망가려 하다가 잡히셨지요? 이게 언제지요?

○ 지성호

그것은 2006년도 제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당시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셔서 고문 받으셨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지는 어떻게 잡히셨지요? 선생님께서는 안 잡히셨는데 아버지는 왜 잡히셨어요?

○ 지성호

제가 2006년 탈북 할 당시에 아버지가 북한에 계셨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정말 살만한 나라고 괜찮으면 저희가 아버지를 후에 모셔 가리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저희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진짜 그렇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탈북하고 저는 3-4개월이면 북한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듣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 하는 과정은 너무 길었고, 또 여기 와서도 사회적응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받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연락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요. 그리고 북한으로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신 뒤였고요. 그런 안타까운 소식만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소식을 듣게 되신 거지요?

○ 지성호

제가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북한에 연락을 했습니다.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때 지인이 그렇게 이야기 해줬습니다. 북한에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기다리다가 국경을 넘던 과정에 북한 국경 수비대에 체포되었고, 북한 보위부로 이송되었고, 또 보위부에서 저희가 있는 행처를 대라고 아버지한테 신문 했는데 아버지는 저희하고 연락이 안 되어 있는 상

황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고문을 통해가지고 아버지가 생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니까 리어카에 실어서 저희 집으로 모셔다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사람 인기척이 없고 해서 나가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그런 상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리어카 같은 것을 통해서 집으로 온 것 맞지요?

○ 지성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이웃이 발견 했다고 그러셨지요?

○ 지성호

예.

○ 마이클 커비

이웃이 보시기에 상당히 심각하게 매를 많이 맞았다고 이웃이 알아볼 수 있었던 거지요?

○ 지성호

예,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 마이클 커비

그 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휴대폰으로 통화했을 때 얘기해주신 거고요?

○ 지성호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지인이 봤을 때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신 거죠?

○ 지성호

네, 돌아가시고 난 뒤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이후 한 4년~5년 뒤에 저희 고향에서 함께 살던 친구가 탈북해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그 상황,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한 번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저희에게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가요? 추가적으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뭐하고 계시죠? 장애인 인권 등을 위해서 혹시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 지성호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과거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픔이 오늘 북받쳐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더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아온 동안에 그냥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이제 자유,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쉽게 살아가면 되고 또 사회를 위해 사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죄책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제 지인 중에 로보트 박이라고 북한 인권 운동가를 2009년도에 만나서 그 친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지나온 과정, 또 지금 저의 삶, 저희 가족과 같은 삶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인권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단체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 수 있는 알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제 언론이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남한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조차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

도록 돕는 일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북한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런데 방송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북한으로 방송되는 것을 막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실, 이런 세계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 지성호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유아시아방송 RFA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분명히 전파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정전이 가고 이런 상황에는 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방송되고 있는 여러 개의 그런 대북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북한에 있을 때 잠깐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남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방송을 실제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DVD나 이런 녹화된 것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방송을 받아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아세요?

○ 지성호

방송이 아니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를 잡아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대개 밤에 많이 듣는데요. 라디오를 채널 돌리다 보면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 나라 말들이 들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말이 나오면 듣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방송이 어느 방송국인지도 모르고 듣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채널은 북중 국경에 탈북자들이 중국 넘나들면서 그런 남한 영화 비디오들을 가져다가 북한에서 몰래 유통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하기에는 북한 전역에서 남한 드라마들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현재에는 주로 말씀하신 NGO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일도 하고 계신가요?

○ 지성호

저는 NGO 활동과 함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한 명의 변호사로서 선생님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 지성호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쭙본 것 이외에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물론 선생님의 전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는 아마 없으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주시고 싶은 중요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나요?

○ 지성호

북한에서 생활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에서는 우리 북한식 사회주의가 최고고 또 우리 수령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국제사회라던가 그 어느 나라도 일단 북한 정권 체제하고 대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려고 했지

일단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고 북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 봤자 될 수 없는 구조임을 북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아마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은 만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개처형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요. 제 생각으로는 큰 죄가 아니고, 죽을 만한 죄가 아닌데도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양심적으로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언제인가부터는 공개처형이 아니라 내부에서 몰래 처형한다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공개처형의 공포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반에 들어서면서요. 그래서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는데 중국을 넘나드는 친구들, 중국 넘어와서 남한 라디오라든가 TV라든가 이것을 마음대로 보고 넘어가니까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의 심각함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심각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북한이 계속 이런 공개처형을 할 시에는 북한에 정말 경제적인 봉쇄를 해서 모든 것을 못하게 차단하겠다 한다. 그로 인해서 북한에서 공개처형 빈도수를 줄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들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충격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외부를 볼 수 없고 외국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 그러니까 일반 우리 주민들의 그런 아픔이라든가 그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다른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서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라든가 모든 정말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이런 심정에 맞춰서 이렇게 도움을 주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이제 조사도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더 이야기하면 참, 뭐랄까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개 도구 내지는 일단은 때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제가 한 번 북한 고위부에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인가 아마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한 일주일 넘게 겨울에 감방에 감금되어 있었는데요. 참 대하는 것이 너무 혹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끝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뭐랄까요. 취조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것에서 힘든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동료들이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선생님께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나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분이기 때문에 정상인보다 2배나 더 힘들었을 그런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의 사고도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드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가족관계 혹은 친척들이 만일에 크나큰 고통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가족들끼리 서로 챙겨야 된다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 관계는 어땠지요? 가족이나 친척들이 서로 도와

야 한다고 생각을 했나요?

○ 지성호

예. 일단 친척들은 도와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북한에서 가족애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 하셨고요. 말씀 드리면 그때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3명인데요. 저를 살리려고 택하면 동생들이 굶어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를 포기하면 동생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고, 동생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주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저한테 살리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 동생들이 굶게 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버지한테 감사한 것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치료 해주셨다는 것 그것인데요. 저도 그때 병원에 누워 있을 때인데요. 제 남동생이 면회 왔는데요. 참 그때 생각하면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성장 발육은 안 됐던 것은 기본이고요. 얼굴이 퉁퉁 부었는데 정말 집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주는 죽이 있었는데요. 급식이지요. 그것을 동생한테 먹으라고 주니까 자기는 먹었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동생이 먼저 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주사약을 아버지가 좀 사고 항

생제라고 하지요. 그것을 사다가 상황이 안 되고 하나 제대로 주사를 못 맞고 한 시기가 있었는데 참 그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통증이 밤이면 더한데요. 항생제를 맞지 못하다 보니까 손은 일주일 만에 치료가 완쾌 되었는데 발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이 한쪽으로 염증이 생겨서 한쪽으로 냄새가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저를 죽여 달라고 고향을 많이 질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아버지나 부모님들한테 원망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살렸냐고. 그냥 죽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끝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포기 하지 않고 저를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반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지성호

예, 들어봤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반사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지성호

일단 반사회주의하면 사회주의에 반하는 생

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반사회주의자 하면 북한에서 통제된 상행위라든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계를 위해서 탈북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반사회주의자라는 용어는 '북한을 배신한다' 내지는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다' 이런 사람들을 반사회주의자라고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수용소, 관리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관리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지성호

관리소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살던 곳에서 관리소하고 인접된, 관리소 철책, 전기 철책하고 연결된 인접 마을하고 살았기 때문에 관리소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저희 22호 정치범 수용 관리소에서는 석탄과 식량이 옥수수가 생산돼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에서 일명 삭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로 석탄을 실어 날랐는데요. 그곳에 철길이 놓여 있습니

다.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1989년도부터 1991년도 그 사이에 놓인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북한에서는 죄수라고 하는데요. 죄수들 10여명 청소년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것은 보위원들 감독관들 호송 아래 철길을 놓는 레일을 놓는 작업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는 10살 그 정도였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 사람들은 북한체제에 불만을 갖는 반동 놈들이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선전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평균 키가 일반 사람들보다는 10cm 정도 키가 조금 작은 것이 기억나고요. 얼굴은 뚱뚱하고 단체적으로 죄수복 탐색 그런 복을 입고 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철책 주변도 정치범 관리소하면 그 주변에 제가 탈북해 나오기 전까지 농사짓던 땅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저희가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다보면 정치범 수용소 안에 마을들이 일부가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잘 정돈되어 있는 보위부 사택으로 추정되는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허름한 그런 집들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과 비슷한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북한 22호 정치범 수용소는 5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봉, 황령리, 락생리, 사울리, 그 다음에 하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지역이 있고 좀 범위가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데 '89년도, '80 몇 년도에 일부분을 좀 줄이면서 그쪽이 개방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저희 친구가 있어서 갔었는데 가보니까 일반 보위지도원들이 살던 집들은 좋은 집이고 잘 정리되어 있고, 일반 죄수들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되는 집은 좀 너무나도 우리 북한 일반 주민들이 살던 집보다는 너무나도 한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 정치범 관리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말고 다른 일반 북한 주민들도 이 관리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 지성호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일명 공포정치라고 하지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부조리하고 잘 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에 대한...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배급을 타먹고 산다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도 식량난을 겪으셨는지요? 고난의 행군이 기아가

다쳤을 당시 6월인가요, 8월인가요? 그때 선생님도 먹을 것이 없으셨나요? 식량난을 겪으셨는지요.

○ 지성호

북한에서 식량난 당연히 겪었습니다. 배고픈 고생은 너무 많이 했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식량 배급이 저희가 살던 곳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995년 1월~2월경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이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살고 일하고 이런 패턴이 식량이 전혀 끊기다 보니까 굶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야 되는지 자체를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지요. 주는 것만 받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아사로 죽지 않나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배급이 그 배급 공급제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요?

○ 지성호

예, 공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배급식량 하루 분량 g수가 있고요. 또 사무원, 학생, 청소년 따라가지고 그 g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g수를 종합

해서 한 달을 2번으로 나누어서 합산된 kg수를 식량 배급으로 나누어주고 했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이것과 관련해서 배급이 그 제도를 통해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을 때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가 세계 식량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전달 됐습니다. 마을에까지도 전달 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 지성호

저희는 가끔 외국에서 들어온 식량 포대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까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던 탄광에도 유지하는 당 간부라든가 보위부 가족들이 있었는데, 원래 일반 주민들 다 함께 먹으라고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창고에 쌓아두고 그 사람들 식량 배급으로 1년이든 반년이든 그것을 쌓아뒀다가 자기들 식량 배급으로 가져가고, 일반 사람한테는 잘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이야기를 듣기로 '불쌍해서 도와준다' 이런 것보다는 '김정일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내지는 대한민국에서 갖다 바치는 것이다' 해서 그것에 그런 원조도 결과적으로는 '정치를 잘 하는 덕에 먹는 것이다, 원조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북한 당 간부들이라고 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감사합니다. 이처럼 선생님이 겪으셨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보려고 하는데요. 정신지체자,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분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곳이 있는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장애자들도 거리에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체제라든지 북한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 지성호

일단 예전에는 북한이 49호 병동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 그쪽에서 분류에 따라 가지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웬만한 정신지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저희 동네도 제가 알기로는 두세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다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굶어서 돌아가셨고, 식량난이 제기되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시설 내지는 격리시설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도 다 집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굶어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렇다면 이 기아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분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아 때문에 북한 정부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던 분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기아가 이유였을까요?

○ 지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주민들을 그냥 방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식량난 때문에 이제 그랬는지 그거는 하여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이후로부터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라던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렇다면 일부러 그냥 잘 돌보지 않고 식량도 주지 않고 돌봄을 받지 못해서 정부가 일부러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지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 선생님,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해 주셨고요. 제 동료들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역경을 이겨내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 지성호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다음 순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신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요?

12시 5분에 시작할까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12시 5분에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재개)

○ 마이클 커비

대한변호사협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민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한국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세 분께 증언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쭙는 질문이긴 한데, 오늘 해주시는 증언이 진실된 증언임을 저희에게 맹세해주시는 바입니까?

오늘 하실 말씀이 아시는 한 진실임을 저희에게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김태훈 변호사

예.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쪽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백서라고 2012년에 발간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재단과 함께 발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북한 인권백서를 바로 증거S9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선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뿐만 아니라 유엔과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한국 정부 측에도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훈 변호사

그러면 제가 우선 20분 내지 30분에 걸쳐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6년부터 2년마다 북한인권백서 화이트페이퍼를 발행해왔습니다.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발행해 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8년, 2010년, 2012년도 북한인권백서 발행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주로 2012년도 화이트페이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 백서는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2009년 1월 1일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자 101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응답자 101명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101명 중 37명인데, 그 형사재판을 경험한 37명이 일시는 2000년 이전이 6명,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각 1명씩 4명, 2004년 5명, 2005년 1명, 2006년 4명, 2007년 6명, 2008년 5명, 2009년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저희가 입수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에 형사법의 내용과 그 내용상의 문제점과 또 그 적용 실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법체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법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해서 통치수단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나라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보다도 가장 위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최고

지도자의 말씀, 지도가 최고의 규범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위 말하는 10대 원칙,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노동규약이 노동당의 정관, 규약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법의 최고인 헌법은 위와 같은 위계질서에서 본다면 네 번째에 위치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릴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러한 위계질서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형법은 1950년 3월 3일 제정이 되어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는 구소련의 스탈린 형법을 모방해서 유추해석과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또 범죄의 예비와 미수를 기소함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법을 개정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2004년도 6번째 개정입니다. 이때 형법6조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처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10조에서 규정했던 유추해석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밖에도 구성요건을 상당히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정된 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구성요건이 북한형법 각칙상 구성요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개념이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의 죄형법정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형법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6개의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 제59조에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에 테러죄, 제64조 파괴암해죄의 경우를 보면 그 구성요건이 '반국가 목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반국가목적인지 규정에 없습니다. 또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상이 무겁다는 것인지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62조에 조국반역죄, 제278조에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또 민족반역죄 67조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그 조문에서도 구성요건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것은 하나의 전형적인 예에 불과합니다만 이와 같이 극형, 즉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문부터가 구성요건이 너무 다의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형 규정이 점점 확대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4년 북한 개정형법에서는 5개의 범죄로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7년 12월 19일에 형법부칙이라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면서 16개 조항에 걸쳐서 사형을 신설 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선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또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조문까지도 있어서 결국에는 구성요건에 사형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형을 처할 수 있는 해석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규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지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통 자유세계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예비음모, 미수와 달리 미수 이전 단계지요 미수에도 이르기 전에 예비음모 단계만 있어도 일반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량은 감해지기는 합니까만 일반적으로 예비음모도 처벌규정에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벌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화이트페이퍼에 썼습니다만 체제 유지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할 수가 있겠습니

다.

다음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이것이 50년 3월에 제정되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과 마찬가지로 2004년에 전면 개정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전진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또 5조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형사소송법 이전 계급노선의 관철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나와 상대방을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여 일반 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개항을 의지로 하면서 법적 제재 배합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제3조에서 균중노선의 관철원칙이라고 규정을 해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 있어서 균중의 신부가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서 범죄의 진압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수사절차를 단순히 수사 절차와 그 다음에 피심자를 확정하는 예심 절차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에 수사를 일반 수사와 예심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 절차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3심제가 아니라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사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절차는 북한 형사소송법 134조에 보면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를 적발해서 예심에 넘기는 것이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원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형사소송법에 수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수사원으로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비사회주의 그루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사회주의 그루빠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사원이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체포 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심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14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선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수사원이 혐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검사의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세계에서 말하는 사법통제, 즉 법관의 승인이 아니라 일반 행정관인 검사의 승인이라는 점이 우선 심각한 인권보장의 약점으로 우선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일단 구속된 뒤에도 우리나라 일반 자유세계에서처럼 구속적부심 제도가 없습니다. 또 억울하게 구속됐다 하더라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권 규약정 ICCPR에도 어긋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적용 실태를 보면 그 현상은 더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10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서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또는 가족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4명인데, 그 중에 83명, 거의 98.8%가 전부 체포 구금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원칙으로 적용실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행법 등으로 검사 승인없이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거의 84.5%가 그러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북한 주민 응답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실제로 체포 후에 검사 승인 없이 체포한 후에도 48시간 이상 체포 구금되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예심 단계에서는, 이것은 수사 단계입니다. 예심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 구속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즉 수사원의 예심원의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182조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도록 그 규정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입법적인 불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심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183조에서 체포 구속 처분의 결정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즉시 알려주고, 체포 구속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그 장소와 시간을 가족과 소속 단체에게 알리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규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 자체에 또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사원은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심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결과 체포 후 예심기관으로 넘겨질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수사를 받았던 응답자 84명 중에 모른다는 사람이 13.1%, 15일 이내에 넘겨졌다는 사람이 28.6%이고 나머지 58.3%는 1개월부터 24개월이라는 장기간 수사 단계에 있다가 예심에 넘겨진 것으로 적용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사소송법 43조, 45조, 52조, 145조에 의하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더라도 체포 구금된 자가 정신병이나 중병에 걸린 경우 구금을 중지하고 의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정신병이

나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를 목격하였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3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 헌법은 164조 제1호가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소자라는 것은 수사, 예심단계를 거쳐서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북한의 피소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사단계와 예심단계에서는 헌법상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보다 하위 규범인 북한 형사소송법에 보면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 피심자는 수사단계를 거쳐서 예심단계에 있는 사람을 피심자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피소자는 예심단계를 끝내고 재판절차에 들어간 사람을 피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 추궁 결정을 받은 때부터 사실 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도록 이렇게 변호인 선정 시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책임 추궁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예심원이, 수사단계를 거쳐서 예심단계에서 나름대로 수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형사 책임 추궁 결정인데, 형사 책임 추궁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변호인의

선정권이 생긴다는 점에서 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북한 일반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상으로도 봉쇄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가 끝나서 예심으로 넘어가는데 예심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에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에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힌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보통 수사를 예심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사, 예심 한계가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이 예심절차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하고, 예심원이 또 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심원은 수사원으로부터 범죄 사건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예심 시작 결정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보면 응답자 중에 이러한 하 규정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73명 중에 13.7%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48시간 안에 예심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4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예심은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면 형사책임 추궁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48시간 안에 피심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서 등본을 48시간을 이내에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나 응답자의 87.7%가 형사책

입 추궁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심자를 구류, 구속 체포하려면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여기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예심원이 구속할 때도 법관의 승인이 아니라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통제가 안 되어 있고, 또 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체포할 때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로 예심원이 체포 당시 신분증명서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는 응답은 30명 중에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혀 제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친지의 접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전한 common-sense에 의해서는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태 조사 결과는 43.4%만이 허용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심단계에서는 부당한 대우와 자백의 강요와 가혹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심원은 북한형사소송법 167조에 의해서 신문시에 피심자에게 강제의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하며, 피

심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피심자의 권리를 피심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심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70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수사에서 예심 절차에 이르기까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죄의, 고문이나 학대 등의 폭력을 가하거나 유리하게 해줄 테니 자백을 하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30명 중에 25명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예심원이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또 재판에서 사실 심리를 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심리를 해서 재판을 할 때는 이미 또 변호인의 선정권이 법상으로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나마도 이렇게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북한이 형사소송법 159조는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응답자의 97.3%가 전혀 그러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응답을 해

서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심단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하였다는 경우가 76.7%에 이르고 있고, 또 접견한 경우에도 별도의 접견실이 없어서 변호인을 접견할 때에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고, 예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수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재산몰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에서 예심에 이르기까지 범죄 사실의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를 조사하는 사람이 범죄조사는 관련이 없이 범죄 혐의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범죄행위를 가볍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범죄혐의자로부터 재산이나 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 30명 중에서 17명, 즉 57.7%가 그렇다고 대답해서 수사원의 예심단계에서의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심이 끝나면 이제 검사가 피심자를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재판단계인데요. 재판에서는 이제 북한의 재판소 구성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따라서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와 시군인민재판소 3급으로 구성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재판은 2심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최고재판소, 최고법원은 제한 없이 1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재판소가 제한 없이 1심 재판을 할 수 있는데 1심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은 상급법원의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ICCPR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재판소의 독립성, 재판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화이트페이퍼에 썼고,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판소가 아닌 기관에 의한 각 재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른 자료이야만 저희가 화이트페이퍼에는 쓰지 않았지만 힘으로라든지 관련 자료에 보면 동지심판의 제도, 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비사법적 기관에서 1개월에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처할 경우에는 법에 없는 재판기관이 재판을 한다는 점도 부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재판 공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공개는 북한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직접 형사재판을 받았던 응답자 37명 중에 20명만이 재판 공개를 받았다고 그리고 17명이 아니라고 답변했고, 또 선고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19명만이 공개가 됐다고 그리고 18명은 공개가

안 됐다고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나 당 위원들의 재판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101명 중에 20명만이 '예'라고 답변했고 49명은 즉, 50% 가까이는 '그러한 고위공직자는 재판 공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재판심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면 법문상으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강압 유도방법으로 할 수가 없고 유일한 증거일 때는 범죄증명으로 하고 있지 못하지만 북한에는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전문법칙 hearsay rule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증인 신문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37명 중에 7명만이 '자기가 증인 신청을 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증인을 신청할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고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37명 중에 17명이 '부당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북한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선정권의 선정 시기도 제한이 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로 보면 이 사람들의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보면 37명 중에 7명만이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수사, 예심, 재판 절차에 걸쳐서 광범위하

게 변호인의 재판권이 제한이 되고 있고 또 변호인의 역할 자체가 피의자의, 또는 피고인의 권리 이익보다도 실제적 진실발견에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관계상 다 생략을 하고, 현지 공개재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공개재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북한에서는 현지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물론 형사소송법도 현지 공개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101명 중에 78명이 현지 공개재판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58명이 현지 공개재판이 1회에 종료됐고 항소, 상소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현지 공개재판 중에서는 총살, 그러니까 공개처형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수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은 현지 공개처형이 상소권이 부여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밖에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또 그동안 이제 비밀처형이 그동안 풍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탈주민으로부터 직접 북한 제12교화소, 전거리 교화소에서 1998년 5월부터 1998년 말 사이에 한 200여 명 사이를 비밀처형 했다는 것을 직접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들께서도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저희가 질문을 먼저 할까요? 민 변호사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민경한 변호사

질문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인권이사인 민경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에 1만 5천 명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런데 대한변협 내에는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위원회 산하에는 8개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8개 소위원회가 있고, 북한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그 소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도, 대한변협 집행부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고 통일된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시고 그 옆에 계시는 이석범 변호사님은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은 법률가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즉,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나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나 단체, 국가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북한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의견 표명한 UPR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저희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으로 UN에 제출할 문서라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서 사실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미흡하다고 해서 제출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작성된 UPR보고서는 북한 이탈 주민인 두 사람의 증언뿐이고, 그 중 한 사람의 증언도 1998년과 99년의 진술로써 지금으로부터 14년~15년 전후 진술로써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또한 2000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보고서에 '2011년부터는 상당수 공개처형이 비밀처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금년 4월 한 토론회의 보고서항에 불과해서 북한의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이런 상태에서 대한변협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추가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으로써 이번에 대한변호사협의회 명의로 UN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석범 변호사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저희 대한변호사 협회를 초청해서 북한이 형사법제와 관련된 이런 진술을 표명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UN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를 조사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 개선에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한국 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 북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방금 전에 민경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떼면 백서의 증거에 관한 부분, 신빙성, 신뢰도를 제거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변호사협회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대한민국과 체제와 여러 가지 이념이 다른 국가입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한 국가로서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이 나름대로의 법령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보유하기 위해서 과거에 어떤 소련의 스탈린형법으로부터 연역적으로 유래되는 그런 헌법은 최근

2000년대 들어와서 상당 부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부사회나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또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권고와 압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사들이 보기에 북한이 형사법 체계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도 보인다는 것이 객관적인 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발간하는 백서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태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예산과 예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이를 떼면 대한민국의 극한 북한에서 경험하고 이런 형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를 떼면 탈북자들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3년에 발간한 백서는 100여 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부분도 탈북자의 지역적, 그러니까 접경 지역과 내륙에서의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이를 떼면 조사대상으로서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북한이 북한 주민의 어떤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법령을 개정했다 하더라도 역시 적용 실태에 있어 가지고 역시 북한 체제 내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서 이른바 수십 년 동안 치열한 투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던 상황은 오히려 역설적이게 지금의 북한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80년대 이후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희생을 딛고 서서 지금 현재의 자유 인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북한이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이 남한의 체제를 적대시하지 않는 한 저희는 북한도 통일의 동반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는 인권 개선을 위해서 권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인권 조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해서 이런 한계점을 충분히 조사위원회에서 참작하시어 조사위원회 결과가 우리 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이클 커비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민 변호사님 그리고 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백서를 통해서 이해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또 저희 위원회 중의 한 명이 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이번 주 안에 만나 뵙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

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북한에도 변호사협회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공식적이 되었던 비공식적이 되었던 북한의 그러한 변호사협회와 연락이 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북한의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는 러-아시아라든지 국제변호사협회라든지 기타 다른 그런 관련된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변호사협회와 북한의 변호사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국제행사라든지 국제무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석범 변호사

먼저 북한에는 조선변호사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대한민국에는 대한변호사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변호사법과 변호사 협회가 있고, 또 북한도 국제민주법률과 협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체제상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상 북한은 당국과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의 지도와 이런 것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있어서의 변호사 활동이 저희 민주사회처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민경한 변호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변호사 협회와 북한의 변호사협회가 교류를 시도하거나 교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의 형법이 스탈린시대 형법에 모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탈린 형법도 독일인가 스위스의 형법에 기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법들간의 유사점이 있어서 한국에 변호사들이 북한의 형법을 읽었다면 기본적인 구조나 기본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한국의 형법의 모델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한국의 형법과 북조선의 형법의 차이점, 공통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훈 변호사

북한의 형법이 소련 형법을 모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련 형법 중에서도 스탈린 형법을 모방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탈린 형법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독일의 어떤 전통적인 법체계를 상당히 변형을 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석범 변호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탈린 형법은 기본적으로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

고 체제 보위를 위해서 이를 테면 일당 독재 체제 하에서 당연히 민주사회의 법체계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반국가범죄 같은 것 반체제범죄 이런 것은 당연히 북한도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모델은 스탈린 형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의 형법은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서 형법을 제정할 때 독일계통의 형법, 민주진영의 형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북한 형법과 남한 형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유감스럽게 북한 형법 내에 포함되고 있는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는 유감스럽게 대한민국 형법에는 별도의 특별법,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도의 규율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직도 한반도에서는 이념적인 체제 대결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위에 대해서는 서로 양 체제가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탈린 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 형법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또 대한민국 형법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성에 대한 법이라든지 동성 금지법인가요?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편견이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어떤 법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금지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스탈린의 형법처럼 북한에서도 동성애자 금지하는 법이 있나요? 왜냐 하면 백서에서는 그런 소수 사람들, 동성애자에 대한 말이 없었기 때문에 여쭙보는 것입니다.

○ 김태훈 변호사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그 부분은 밝히 형법상 동성애를 금하고 있는지는 현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저희가 바로 확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도 우선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보통 민법에 보면 사실 검사가 공통법에 봐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법에서는 사실 검사나 피고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에 검사가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나요? 왜냐 하면 사실 법의 이론상 어쨌든 공평한 또 독립적인 방법으로 사실 검사 그렇게 허가를 줄 수도 있는 것인데요. 한국에도 검사, 북한의 검사하고 유사한 권한이 있나요?

○ 김태훈 변호사

전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는 검사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 헌법을 보면 그래도 형식상이지만 최고 재판소 소장, 최고 재판소 판사, 또 그 이하에 각 재판소에 판사들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즉 주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선출되고 거기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그렇지 않고 최고 검찰서 소장만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이 되고 그밖에는 그 이하 모든 검사는 최고검찰소에서 다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의 헌법상 또는 법상의 지위가 전혀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검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북한 검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사, 예심, 재판 모든 권한에 있어서 그것을 감시토록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민경한 변호사

북한 검사의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검사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권한을 갖고 있다고 흔히들 표현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검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그래서 끊임없이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끊임없이 중용하고 있는 정치권의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 했습니다. 247장에 있는 것인데요. 72.2%의 탈북자들이 2012년에 인터뷰한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이 세상에 어떤 사상들보다도 훨씬 훌륭하다고 응답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으로 온 탈북자들의 3분의 1이 주체사상이야말로 그 어떠한 사상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조금 있겠지만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직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태훈 변호사

예. 그 점은 교육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집에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아침부터 숭배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을 아버지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은 김일성, 김정일의 주체사상은 세계 최고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봅니다. 그 분들이 비록 북한을 이탈해서 남안에 왔지만 그것을 세뇌 받은 데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 동료들이 질문이 있는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감을 받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변호사협회가 UPR을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희 COI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설되었습니다. 저희의 조사한바 저희는 데이터를 UN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반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북한은 저희가 제공한 권고들을 모두 거절한 유일한 그러한 국가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을 제가 좀 이해하고 싶은데요. 조금 더 충분히 이해하고 싶은데요.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

신 것처럼 북한의 형법이 스탈린의 법에 기반을 해서 제정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형사법으로 제정이 되었고, 이게 사회주의 체제에 법제도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서서는 북한 형사법에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한 것을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사형, 그리고 사회적 계층, 그리고 관습법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요. 사형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형법이에요.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정책의 측면에서는 인권과 우리 세계에서 알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변호사 협회가 제공한 분석 자료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북한 체제를 묘사하는 딱 맞는 단어가 사실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 질문은 이처럼 거대한 북한 법 체제를 두고 보면 바로 이것이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나 불의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반대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던 증언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반대 입장에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이 사실은 제가 잘 납득

이 가지는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변호사 협회의 입장이 저는 사실 와닿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혹시 북한에 법 체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붕괴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북한 인권이 보장되거나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태훈 변호사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하기 시작한 게 2006년도에 비로소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전 형태로 공간이 되는 것이 Publish가 되는 게 비로소 2006년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형법,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2006년도에 법전 형태로 나온 것을 저희도 간신히 이제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것도 상당히 공간이 됐다고 합니까만 지금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북한의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어떤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가 행위를 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주는 지금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커비 위원장님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뒤져봤는데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정보가 한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저희가 항상 입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우선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6개 조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북한 형법 부칙을 제정하면서 16개에 걸쳐서 사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이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범죄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의 형사법 체계는 우선 그 내용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중에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규정이 실제부터 적용실태에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 민경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인권 문제와 형사문제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게 아니고요. 이번에 UP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던 것은 우리 여기 계신 김태훈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건데, 그 북한 많은 형사문제 중에서 생명권, 특히 생명권 중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한 건데, 법률가라면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 단 2명의 증언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 증언에도 14년~15년 전 진술이고 또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13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런 단 2명의 증언,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증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법률가로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지 북한 인권문제 전반이라든가 형사문제 전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 됐다, 잘못됐다 평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할 상황도 워낙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표명할 단계도 아니고요. 단지 생명권, 특히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 이석범 변호사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사 위원께서 여쭙보신 북한이 붕괴 직전에 있는, 법령체계에서 붕괴 직전에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견해의 표명이 불편하셨다고 느끼셨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 마이클 커비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 않습니다. 붕괴 직전이 아니고요. 그렇지만 혹시 지금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정에 대해서 해결의 여지가 있나

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 이석범 변호사

그래서 저희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권고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러한 일련의 북한 개선활동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만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조치고,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규범, 예를 들면 존중돼야 되고 보호돼야 되고 증진돼야 되는, 인권개선을 촉구할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대한민국 내에서 일부분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활동이 평화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통일의 대상자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인권이 개선돼야 될 북한 주민도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세 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변호사협회를 곧 방문하게 될 텐데요 지금 보고서가 있는데 보고서를 저희에게 2부 더 주실 수 있을까요? 2012년 보고서 2부가 더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회장님 방문할 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지)

(속개)

○ 마이클 커비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측에서 다음 증인들을 모셔다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본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보호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셨을 때 본명 사용하는 것 허락해 주신 것 맞습니까?

○ 정진화

예.

○ 장혜성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두 분 모두 오늘 조사위원회 측에 하
실 모든 증언이 진실 된 증언임을 저희에게 약속
해 줄 수 있습니까?

○ 장혜성

예,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록상 이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석하신
두 분은 바로 정진화 선생님, 그리고 장혜성 선
생님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두 분께서는 저희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룸에 있어서 도
움을 주실 거고, 그리고 방송이라든지 언론의 자
유, 그리고 차별, 그리고 기아와 관련되어서 저희
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장혜성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정진화 선생님, 우선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
겠습니까? 우선 본인 소개 좀 먼저 해주시기 바
랍니다. 북조선에서의 여러 배경이라든지 한국에
오시기 전에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런 말씀
부터 쪽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진화

저는 정진화라고 합니다. 1964년에 북한 함경
남도 함흥에서 출생 했고요. 3년제 전문대를 졸
업하고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철도방송위원회
함흥 주재부에서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1999년
1월에 탈북을 했고, 2002년 9월에 대한민국에 입
국해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
다.

○ 장혜성

저는 장혜성이라고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저희가 따로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혜성 선생님 괜찮으시면 우선 정진화 선생님
말씀부터 듣고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사셨을 때 꽤 좋은
삶을 사셨던 것 같은데, 그 삶에 대해서 그 인생
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어떻게 일
종의 특혜 받은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북한의 그
런 정권체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서 먼저 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 정진화

정치국가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
지 도움을 많이 입었다고는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고요. 할아버지가 항일운동에 참가한 독립

유공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한국으로 말하면 공무원직에 해당하는 직책에서 일을 했고요. 저도 3년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북한에 얼마 안 되는 아나운서의 직업을 갖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고 다른 것들도 많았겠지만 어차피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과 그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시 하는 사회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 덕을 입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클 커비

할아버지께서 항일투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항일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북조선에서는 혁명가로 여겨지신 거지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왜냐 하면 사실 혁명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셨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정진화

할아버지는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하셔서 안 계셨지만 혁명자 유가족, 유자녀라고 할 때 제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할아버지 덕을 많이 입은 것은 사실이고, 1930년

대 김일성이 중국에서 혁명 활동을 할 때 할아버지의 가족이 형제가 8분 중에 4명이 항일운동에 참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모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가족에서 4분이 항일운동에 참여했고, 또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중국에 있는 지원군으로 조선인민군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사망하기는 남강원도 황성에서 전사를 했지만 그 당시에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북한에서는 항일혁명 유가족으로 저희들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던가요.

○ 정진화

말씀을 드리기를 북한에서 만약 저 같은 가정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 이상은 김일성과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만 가져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직업이 공무원이지만 김일성 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제 직업이 아나운서다 보니까 저는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일성 가정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직업적인 정신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충성심이 많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혹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 정진화

아니오.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흥이라는 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직접적으로 함흥에 내려오는 계기는 일의 행사나, 이런 행사에서 먼발치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제가 북한에서 말하면 어떤 접견장,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만난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아나운서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하실 때 표현의 자유랄까 언론의 자유가 있었나요?

○ 정진화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엄격히 금지된 나라입니다. 북한이 헌법으로 보면 언론, 신앙, 집회, 결사, 결혼은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의 자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다른 분야보다 심각하게 금지되어 있는 상

태입니다.

북한에서는 아나운서들이라도 할지라도 자기의 뜻이나 또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태고, 북한의 아나운서는 철저하게 위에서 내려온 원고를 가지고 그 원고 내용을 한자의 빠짐이나 틀림없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자, 그러면 읽을 자료를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었지요?

○ 정진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송하는 자료는 종합기관지 노동신문입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1면부터 6면까지 기사 중에서 매 시간에 해당되어서 그 해당된 시간에 어떤 방송을 해야 되는지 체크되어 내려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부 기타 별도로 내려오는 원고는 위에서 작성을 해서 위에 검열을 거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그것을 한자의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기사나 그런 내용에 국가정부나 아니면 노동당이나 아니면 군에서 하는 내용들, 얘기하는 입장이 항상 같았나요? 혹시라도 입장이 다른 적이 있었나요?

○ 정진화

입장이 다른 적은 없어요.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북한의 노동신문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저희가 아나운서를 했던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6면은 어렸을 때부터 규정된 6년 문장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1면과 2면은 북한으로 말하면 정치뉴스입니다. 김일성과 그 가계나 그 범주 내에서 해당되는 정치뉴스를 1면과 2면에서 다루고, 3면과 4면은 북한 내부에서 경제, 발전 또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를 보도하는 3면과 4면 뉴스로 볼 수 있고, 5면과 6면은 한국과 미국 기타 제3세계를 겨냥하는 그런 뉴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만약에 선생님께서 실수를 하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일 방송국에 입장에 대해서 좀 다르게 표현 했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다르게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나운서가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경우는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정진화

북한의 언론 분야에 있어서 실수는 정치 실수라고 봅니다. 그것은 마이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사상의 내용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라는 것은 북한 지도자의 사상이지 저희 개인의 사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북한 언론인들은 그 말 한 마디에 대단히 신경을 쓰는 거고,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자기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직간접으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언론은 철저하게 특히 보도 분야에서는 생방송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뉴스는 생방송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원고와 아나운서들이 몇 차례 걸친 연습을 통해서 한 건의 뉴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때문에 모든 방송에서는 혹시 한국에 와서 느끼는 바였지만 그런 아나운서의 실수는 보려야 볼 수 없습니다. 녹음방송이 철저하게 외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 뉴스는 오류 같은 것은, 또 사고 같은 것은 언론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선중앙방송을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 번 저희 회사에 있는 아나운서가 라디오 주파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한국의 KBS1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린이 방송을 잘못 들었다가 되게 오랫동안 시말서를 쓰고 또 3개월 동안 노동 현장에 가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어떤 특정 감정을 갖고 해야 했나요? 아니면 중립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됐나요?

○ 정진화

아나운서들은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망 애도 소식을 전할 때도 북한 아나운서들이 격조 높게 정말 감정에 북 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데에서도 다른 데와는 달리 많은 감정을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북한 방송의 엄격한 규정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이야기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는 한 박자 천천히, 한 음 높게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 특히 북한하고 적대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에 대한 뉴스를 할 때는 최대의 중요성과 적개심을 가지고 방송하도록 방송 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한국어로 미국에 대한 적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실까요? 지금 여기서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한 번 여기서

예를 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호주 방송을 보면 뉴스를 어떻게 읽냐 하면 사실 적대감이라든지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북한의 아나운서로서 미국에 대해서 만약에 적대감을 표현한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진화

간단한 문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미국을 '백의민족'부터 '북한을 항상 침략의 기회를 노린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진다면... 죄송합니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각 단어에 감정이 되어야지, 강약자 박자가 이제 매 단어를 씹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은" 이렇게 그 말, 말 단어와 단어 사이에 강약점을 넣어가지고 약자보다는 강자를 넣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씹어서 또 다른 감정, 다른 일반 단어를 표현하기 보다는 좀 높게 표현하면서 특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호를 사용할 때는 또박또박 읽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정 전달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남조선"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과 남조선" 대한민국이라는 상호는 얼마 전부터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방

송을 하던 시절까지는 그냥 남조선과 미국이었습
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한국은 방송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됐
어요?

○ 정진화

미국과 남조선은 항상 북한 주민들과는 함
께 살 수 없는 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 온 다음에 북한이 악의 축이라고 이런 발
언이 미국 대통령부터 나오지만 북한은 악의 축
이라는 것을 자기들한테 표현하는 미국에 대해서
그만한 적대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
다. 하지만 자기들이 죄인들이 아니고 항상 1966
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노른자위 같은 땅
을 침략을 하려고 항상 기회를 봤던 미국, 또
1950년대 한국전쟁을 주도해 왔던 미국, 이런 것
을 해 가지고 많은 사건들을 거기다 몰아서 미국
과 한국은 우리 사람들과는 절대로 이 같은 하
늘 밑에서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나
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
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남한이 반혁명국가라는 표현으로 지칭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다.'라고 표현하

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적대적인 말을 붙여서 표
현을 하는지요?

○ 정진화

저는 남쪽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남조선이라
고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라서 북조선이라고 하
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북한은 정확
하게 남조선을 지리적으로 분류해 본 것이 아닌
우리의 적으로 규정한 그러한 상대라고 규정을
지었다고 생각하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남조선은 이제 괴뢰도당과 그 주구들, 미국의 앞
잡이, 식민지 이런 모든 표현들은 남쪽 주민들에
대한 북한에서 최대의 어떤 적으로서의 그러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남조선
은 혁명의 대상으로 규정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지리적 상
명으로는 부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이 계실 때 동독이라든지 루마
니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에 대
한 보도도 방송이 되었습니까?

○ 정진화

1970년대~80년대는 동독의, 유럽권의 사회적
인 나라들과 북한이 연대적인 그런 감정이 제일
강한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가장 잘
나가던 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1980년대부터

동유럽권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것을 북한에서는 미국에 의한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의 어떤 분열과 미국의 추종이라고 이제 낙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루마니아 또는 체코, 유고슬라비아, 알마니아, 우리가 폴란드, 북한말로 폴스카인데,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유럽에서의 붕괴를 북한은 미국이 추정한 자본주의로의 전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우리식의 독특한 우리만의 사회주의를 고집하게 된 거고, 그것을 가지고 그 땅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이 추정한 어떤 혁명가들의 변절이라고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루마니아 대통령이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때 간부들만 보는 일간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루마니아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총살을 당했는데 마지막 시기에 대중적인 시기를 얻지 못하는 13%를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그러한 자막을 건 것이 제 기억에 가장 남는 그러한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티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방송 외에 드라마라든지 음악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주민들을 즐겁게 해 주는 방송들도 있었나요? 어떻게 24시간 정치적인 선전방송만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정치적인 선전방송만 했던 것입니까?

○ 정진화

물론 북한에도 문예방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예방송 자체가 북한에서는 사상을 떠난 문예나 오락이나 그러한 프로그램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한국에서 나오는 노래들 중에 '휘파람'이나 '도시촌에 시집가네' 이런 노래는 우리 측에서 보면 사상이 없는 노래라고 보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사상은 당에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갔으니 시내에 있는, 도시에 있는 처녀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군에서 제대를 하고 농촌에 간 총각들을 따라서 가라는, 다시 말해서 당의 어떤 방침으로 제시를 해서 그 노래가 만들어진 것이고, 휘파람이라는 노래도 탄광에서 일하는 청년이 당의 방침대로 탄을 많이 캐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총각과 연애를 한다는 이런 사상이 다분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어떤 노래나 연예프로그램에도 사상이 없다고 말할 못 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밑에 다른 시나 이런 것을 깔고 들어갈 뿐이지 모든 북한이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는 꼭 사상이 지배합니다. 당에서 말하는 사상은 곧 당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모든 방송에 철저하게 제일 순차적으로 구현되는 그러한 기본지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마이클 커티

고난의 행군 때 선생님께서도 이 기아를 겪으셨을 텐데 특권층의 한 사람으로서 고난의 행군이 어떠한 역할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 정진화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은 정말 저는 19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북한에서 사회주의라고 표방하는 그 체제에서 그러한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굶어죽었던 사람들, 자기 체면이나 양심을 잃지 않겠다고 시장에 나가서 자기 하루 벌이를 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당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노동자로서 마지막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판사판해서 어떻게 체면도 없고 시장에 나가도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러한 현실적인 것으로 해서 시장에 나가서 하루 품팔이를 했지만 간부를 하거나 일정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초라해진 모습을 쉽게 드러낼 수 없어서 시장에도 못 나가고 실제로 자기 집을 팔아서 식량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었습니다.

제가 살던 함흥지역은 한국으로 말하면 산업 공단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굶어죽었고, 또 국경지역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 그때는 대중교통수단인 열차가 많

이 움직이지 못했던 탓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로부터 많은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수송이 많이 막혔기 때문에 함흥에서 가장 많은 고난의 행군의 아사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김일성 일가와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북한에서 어떤 특권층, 혁명자 유자녀들,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나 책임을 저희가 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 모든 것이 안 좋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은 어떤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가족이 식량이 그래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땠습니까?

○ 정진화

저는 한국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북한의 아나운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히 구분되는 사람이 아니냐.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업을 얻게 된 자체가 할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항일혁명열사 유자녀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계층의 대우를 받았음에도 혹시 특권층으로 분류되지 않냐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재 삶하고 저희들이 가지게 된 직업이나, 저희 할아버지가 알아온 과거는 그거하고 엄격히 구별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서 제가 할아버지의 덕을 입었다고 하면 저희

가 좀 더 나은 삶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저희 할아버지는 195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 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북한에 이룩해 놓은 그 업적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그러한 공로로 인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은 없고, 다만 할아버지가 혁명을 했다는 그 열사중 하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에서 현재처럼 직업을 가지고 간부를 한다거나 특권층에 속한 자녀들하고는 저희는 그렇게 비교되게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았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특권층의 자녀들도 고난의 행군 때 고통을 겪었다는 말인가요.

○ 정진화

고난의 행군을 겪은 사람들은 북한이 전반적으로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평양시에도 한번 가봤는데 평양시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외국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북한이 수도고 하니까 평양시에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여성들이 특히 바지를 입고 다니지 못하게 통제를 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본 평양의 모든 주민들은 뒤에는 배낭이라는 큰 짐을 지고, 또 사회에서 바지를 입은 사람을 단속을 하니까 아래는 바지를 입고, 또 시내에 들

어가면 치마를 갈아입는 정말 이렇게 옷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곳에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이 특권층의 삶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겠지만 그 당시의 특권층이라고 해서 저는 별로 비껴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겪었지 김일성 일가를 내놓은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들처럼 잘 살고, 북한이 이제 다시 말해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언제 이러한 북한에서의 특별한 삶을 버리기로 결심하셨는지요. 그리고 왜 그런 결심을 했나요?

○ 정진화

1995년부터 '97년 사이는 북한에서 가장 정말 힘든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쓰러진 사람은 그냥 죽어서 나가는 사람이었고, 동에서도 하룻밤 자고 나면 누구네 집에서 누가 죽고, 지금도 7~8월이면 북한에서 가장 더울 때인데 1960년대~'70년대에는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이 잘 돼서 의학적으로 전염병이 다 없어졌던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80년대부터는 나라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쪽에서 예방접종, 다시 말해서 전염병 예방 그런 것을 잘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90년대부터는

'70년대, '60년대 없어졌던 모든 전염병들이 다시 생겨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병 걸려 죽고, 굶어죽고, 겨울이면 이제 얼어서 죽고, 열차가 며칠씩 다니지 않고, 불도 못 땀 방에서, 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탈북자들이 와서 증언하는 그런 게 비교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7년 사이의 모든 일은 탈북자라고 하면 누구나 가장 기억하기 싫은 그때였고,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의 재산에 손을 대고,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나라의 재산이라는 것은 곧 김일성 부자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댄 사람은 공개총살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러한 대중 공개총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포감을 갖게 하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사회, 그런 사회를 보면서 정말 그때 저희들이 사는 나라가 이런 나라로까지 올 수 있다고 그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저는 다만 중국에 있는 이모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히 국경지역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소스를 줬습니다. '여기저기 고생하지 말고 중국에 있는 이모를 만나서 한 번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저에게는 이모의 전화번호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는데 '해양 쪽으로 가면, 함경북도 쪽으로 가면 중국에서 나오는 장사하시는 분

들이 북한이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들어 주고 가면 조선족이라는 그러한, 동네가 작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들이 찾아줄 것이다.' 정말 이게 뜬구름 같은 저는 소식을 하나를 가지고 함경북도 쪽으로 이동해서 한 40일을 기다리다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브로커에게 탈출하기 위해서 돈을 줘야 했나요? 아니면 선생님의 성분 때문에 도움을 받고 탈출할 수 있었나요? 돈을 줘야 됐나요?

○ 정진화

제가 북한을 떠난 것은 성분이라 것은 아무런 작동도 할 수 없었고, 제가 나오다가 한 번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 이모를 만나면 저희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사진 가지고 있던 것, 또 이러한 친척 관계를 적은 종이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국경경비대한테 다 뺏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북한을 떠난 당시에 잡혔더라면 다시 들어갈 때는 그게 혁명가 유가족이나 그러한 것이 저에게 도움을 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당에 충실하고 나라를 믿고 살아갈 사람이라고 그런 믿음을 줬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배반한다는 것은, 특히 저희 직업성으로는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탈북을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

고, 저는 탈북 브로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에 가게만 해달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잡고 탈북 했습니다.

그래서 함흥을 떠날 때는 얼마간의 여비가 있었지만 기차를 타고 나서 13일 동안, 또 함경북도 북경지역에서 40일 동안을 넘어오면서 500원이라는 돈은 이미 다 수중에 없게 되었고, 저는 한 푼도 돈을 안 주고 다만 브로커에게 중국에서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좋다는 그런 약속을 마지막 약속을 잡고 저는 도망을 나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래서 국경을 넘으셨을 때 선생님께서는 남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나요?

○ 정진화

친척을 만나가지고 그쪽 영사관 쪽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도착해서 두 달 지나니까 친척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중국에서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으로 가야지 보호를 받지 중국 땅에서는 너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친척도 그 누구도 없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친척이지만 우리들도 며칠 동안 너희를 구제하는 것은 되지만 너희들을 영원히 먹여살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대한민국이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가 달린

데에는 다 돌아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친척들 집에서 한국TV를 위성으로 보는데 그 TV를 보는 당시에 2000년대부터 탈북자들이 증가하면서 TV에 나와서 남한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되고 연락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울고 서로 서신거래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되게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강열해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경우에 ‘기독교가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더라, 교회 가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어렵פות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십자가가 있는 곳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도 몰랐고 딱히 어떤 교회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무작정 찾아갔지만 그런 것이었는지 제가 교회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또 누가 영사관 전화번호를 줘서 거기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무작정 “탈북자인데 도움을 주세요” 하니까 그냥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 저는 끊어진 전화인지 줄 모르고 연결된 줄 알고 한 30분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중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 정진화

저는 1960년대 부모님이 중국에서 나가신 분

들입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때 많은 청장년들이 희생이 되고 북한이 많은 것이 파괴되었을 때 김일성이 중국의 마오쩌둥 수석한테 북한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일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북한으로 나가겠다는 조선족들 중에서 청장년들을 많이 북한으로 내보내달라는 그런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1960년대에 중국에서 출생을 했지만 북한으로 나간 사람들이고, 저는 부모님이 나가서 1964년에 북한에서 제가 4남1녀의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에 나갔는데 그 관계로 해서 저는 중국에 저희만 나간 것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중국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탈북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친척들을 많이 만났고 그때 처음으로 큰아버지도 뵈고, 그 친척들이 많은 도움을 쥐가지고 집집들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권을 만들었지요.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는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 마이클 커티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혜성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작가였고, 조선중앙방송에 리포터였습니다. 기자셨는데, 그리고 순조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순조로운 삶을 사셨는데 왜, 어떠한 이유로 언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사회에서 비판적인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요.

○ 장혜성

예, 대답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1972년부터 1976년까지 김일성 종합대학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1976년 10월부터 1996년까지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 작가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기자 작가를 할 때는 처음 언론 문예에 진출해서 북한체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취재하고 제가 맡은 부분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맡았는데, 취재하면 할수록 김일성이 잘한 문제보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북한 체제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거기 에다가 또 저 자신이 언론 부분이다 보니까 남한 소식과 국제 소식에 시해서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다른 나라와 대비를 해보게 되고, 더구나 북한체제 대해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과 그런 것을 마음대로 글 쓸 수 없습니다. 쓰는 것은 김일성의 위대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쓰지만 마음속 생각은 전혀 다른 반대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난 후에는 어떤 일들을,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 장혜성

그것은 없습니다. 계속 김일성, 김정일의 위대성 선전에 박차를 가했고, 북한은 기자가 처음 들어가면 6급기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급, 4급, 3급 그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기자 급수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중요한 기사들을 취재할 그런 게 차려집니다. 그런데 점점 더 중요한 것을 취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쁜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김정일 고향이 북한에서 백두산 소백수 골짜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백두산이 아니고 소련의 하바로스크 비아츠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6. 25 전쟁도 북한에서는 남쪽이 먼저 미제의 사측을 받아서 북한을 쳤다고 했는데 실제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6월 25일에 먼저 남침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알면서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운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그런 문제가 국가보위부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

지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계셨던 것 같은데 탈출을 어떻게 하셨나요?

○ 장혜성

아까 정진화 선생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높은 직위나 낮은 직위나 탈출 하는 데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다만 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탈출하는데 유리했던 것은 저 자신이 기자였기 때문에 통행증을 마음대로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행증 없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통행증이 없이는 어디라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자의 신분으로서 또 작가의 신분으로서 통행증이 없이 국경까지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경까지 왔고, 그 다음에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나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은 힘드셨나요? 아니면 쉽게 오실 수 있었나요?

○ 장혜성

다른 사람보다는 좀 쉽게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경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찾아들어갔는데 이것 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에서 저희들의 편의를 잘 봐줬습니다. 봐

취갔고서 그때는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기 전인데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하고 돈까지 적지 않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보다 쉽게 홍콩에 넘어갔고, 홍콩에 넘어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 명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한국에서도 언론 쪽에 종사하셨나요? 만약에 언론에 종사해보셨다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다르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장혜성

먼저 언론에서 차이점을 놓고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만 먼저 하고 넘어간다면 모든 나라에는 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이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헌법보다 훨씬 몇 십 배로 더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김정일이 내놓았던 당의 윤리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10대 원칙입니다. 헌법에서 파생된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이런 법은 위반해도 얼마간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의 윤리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10대 원칙에 저촉되는 문제는 절대로 용서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실 예를 든다면 당의 윤리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10개 원칙 제4조 6

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을 글을 쓸 때는 항상 위대한 수장 김일성 동지 교시를 정중히 이해하고 그에 입각하여 내용을 전개하며 그와 어긋나게 말하거나 글을 쓰는 일이 철저히 없어야 한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토론, 강연, 출판물에 실을 글 이런 모든 언론을 다 의미합니다. 다 김일성의 교시를 먼저 다 이해하고 그에 입각해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됐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북한의 이야기지만 여기 남한에 와서 저는 언론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남한은 모든 기자들이 작가들이 자기 쓰고 싶은 글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여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고 북한은 독재체제 그 이상의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그 성분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이 있고 그리고 그 성분에 따라서 기자로 일하시면서 어떤 차별을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장혜성

차별이라는 것을 그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에서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아까 정진화 씨도 얘기했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김일성 항일 빨치산 그쪽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쌀도 가져다주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제 4명 중에 2명이 6.25전쟁 때 여기 와서 사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특별히 성분이 좋은 사람인데, 그것도 상대적입니다. 제 자신은 그렇게 좋았지만 제가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 출신이 아니었다면, 제가 북한 출신이었다면 거기서 당 간부 또는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 제일 핵심기관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중국 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기관에 들어갈 수 없었고, 언론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언론 부분 그 자체도 북한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괜찮은 권력, 말하자면 특권층에 속하지만 그러나 핵심계층은 못 됩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하고 또 일반 노동자 몇 명하고 사이는 엄격하게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충분히 답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동료 분들께서도 혹시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화 선생님이나 장혜성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신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정진화 선생님, 장혜성 선생님 고

맙습니다. 오후에 지금 증언을 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찾고자 하는 것 바로 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었습니다.

정 선생님, 한마디로 뉴스를 읽으신 거네요? 그 뉴스를 읽게끔 교육을 받으신 건데, 그런데 아나운서로 근무하시면서 지금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나운서로 일하고 계실 때 본인이 읽고 계신 내용이 현실과 다르다 이런 생각은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읽고 있는 내용이 현실과 다른데 그 다른 게 괜찮으셨나요? 왜냐 하면 정신적으로 '어머, 이 내용은 내가 아는 현실과 다른데.' 거기에 대한 갈등은 없으셨나요? 왜냐 하면 읽고 계신 내용이 진실이 아닌 내용도 있을 수 있었는데 갈등은 없으셨는지 그때 마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정진화

언론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모든 생각은 어떻게 보면 김일성의 사상과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거기서도 가장 선진 풍자되는 사람들이 북한의 언론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닌 것도, 까만 것도 하얗다고 하면 하얀 걸로 이제 저희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게 진실이라고 받아

들어지는 것이 북한의 진실입니다. 때문에 북한의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이제 김일성의 사상과 방침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전달자, 당의 사상과 방침을 그대로 선전하는 선전자 이러한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면에서는 북한식으로 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해도 저희들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가족이 어떻게 보면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항일투쟁을 하셨는데, 그 세대 있잖아요. 김일성과 같은 시기에 투쟁을 했던 시기가 그 세대로부터 지금 몇 명이나 생존해 있을까요?

○ 정진화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1세대입니다. 김일성과 함께 혁명활동을 했던 191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서는 거의 사망한 상태고요. 그 나머지 혁명의 2세대, 3세대, 4세대라고 하는 후계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도 그렇게 좋은 생활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80세를 살다 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북한에서 김일성과 함께 혁명 활동을 하던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원로들 1세대는 거의 사망했다고 저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혁명 활동을 했던 사람ियो.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그 혁명 1세대 후손을 아시나요? 그분 들하고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 정진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혁명의 1세대가 사망했으면 북한은 그 후손관리를 잘 해 가지고 ‘너희는 혁명자 유자녀 가족이다, 또는 그 후손이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 자체가 바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대를 이어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너희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이렇게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 후손들을 똑같이 저희 할아버지 처럼 대우를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직계가족처럼 그렇게 정말 북한에서 말하면 고난의 행군식의 아까처럼 특별한 가족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그렇게 정말 관리해 준다면 정말 제대로 된 체계였는데, 북한은 어떻게 보면 신의, 믿음, 어떤 충성 이런 것을 계속 말로만 강조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혁명자 유자녀 가족이다, 후손들이다, 인사를 잘 해야 한다,

너희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말로써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혹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1세대 후손인가요?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요?

그 다음 김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 정진화

저는 1995년도에 북한을 떠나왔습니다.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북한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고, 갑자기 김정일이 죽기 전에 김정일이 뇌졸중을 만나면서부터 후계자 양성을 한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후계자에 대한 입지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점점 세상 밖에 얼굴을 들이밀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김정은을 모릅니다.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지금 김정은이 있는 것은 똑같이 생각하면 김일성이 혁명의 1세대였다면 김정일 세대가 혁명의 2세대일 것이고 김정은 세대는 혁명의 3세, 4세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변에 최룡해나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가 혁명의 1세대입니다. 최현이랑 그게 다 김일성하고 같은 동급의 혁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인

데 지금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혁명의 3세, 4세 이런 후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충성적인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장혜성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보충 토론을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예, 괜찮습니다.

○ 장혜성

저는 김일성 보초도 많이 썼습니다. 8년 6개월 김일성 보초를 썼습니다. 김정일도 많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 정일이 다 저희하고 동창생입니다. 대학 동창생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현이, 그 다음 혁명의 제2세대, 3세대 이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 사람들 자체가 혁명의 대를 이어 끝까지 혁명, 그러니까 김일성이 개척한 위협을 끝까지 이어 나간다 그런 구실 밑에 자기 아버지든 누구든 그 모든 권력과 제보와 그 모든 최고의, 말하자면 호화 방탕한 생활 그것까지 다 자신들이 대를 이어서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들 자기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이 세대들이요. 항상 그런 세대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흘러 내려온 세대들은 향후에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 장혜성

그 사람들이 절대, 노동자를 하는 사람의 가족은 자식은 그냥 대를 이어서 노동자를 해야 되고 수령의 자식은 계속 대를 이어서 수령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지도자의 자식은 또 지도자를 해야 되고 그 밑의 수령을 보좌하던 당 중앙의 선전, 선동부장이라고 하면 그 부장의 아들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지도자한테 충성을 다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간부의 자식은 계속 간부를 하고 노동자, 농민, 일반 근로자의 자식은 계속 근로자를 할 수밖에 없게 그 체제에서는 교양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화

북한 사회는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무계급 사회라고 교육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는 그 어떤 높고 낮음의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주민들한테 설득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북한 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자, 지금 3대 세습이라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체가 북한의 계급사회를 기

본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세상에 안 계셨지만 그 할아버지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쪽에서 저희 후손까지 거기 있으면 대우를 받는다는 것도 아까처럼 1950년대 한국전쟁이나 그 훨씬 전에 1910년대 해방 이전까지, 광복 이전까지 일제시대 때 잘못된 사람들의 과거를 계속 물어서 그 후손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못 하게 하고, 좋은 직업도 못 가지게 하고 이 모든 차별을 두는 것은 북한이 철저하게 계급사회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계급 수준에서 보는 그런 계급사회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한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알겠네요. 사진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 정진화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이 그거를 잘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어떤 사람을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어떤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의 한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아주 꼼꼼하게 여러 가지 채널

을 통해서 책과 도서, 출판, 영화, 소설, 시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 광범위하게 북한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장 선생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김일성에게 충성을 했던 세대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기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장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혜성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진화 씨도 얘기했지만 그와 관련해서 인민들 속에서 주체의 햇발 아래 이런 책들 다 있는데 그 책들 자체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위대성을 선전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다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 영원히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김정일을 몇 번 만났다.' 그러면 내 자식한테도 또 '너희 아버지는 김정일이 그런 대를 받았으니까 너도 끝까지 김정일한테 대를 충성하라.' 이렇게 교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정진화 씨도 얘기했지만 대대로 계급사회가 지속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어느 군수 됐다, 또 지주를 했다.' 그러면 손자, 증손자 때까지

도 그냥 '너희 몇 대 할아버지는 지주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네는 대학에 가는 거 말은 안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 좋은 대학에도 못 가고 좋은 기관에 못 가게 다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 책들은 공개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밀스럽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장혜성

공개되어 있는 책이 적지 않고 비공개 되어 있는 책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 정진화

공개되어 있는 책들도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자체가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 주민들이 교양 자료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놓고, 또 그 사람들의 모범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자체는 거의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두 분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두 분께서는 관리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 정진화

예.

○ 장혜성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 같은 작가를 하던 사람들 말 잘못해서, 말하자면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김정일 체제에서는 꼭 김일성의 위대성이나 김정일 위대성과 관련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것은 작가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4.15 창작사 단장이었던 현승걸이라는 사람, 이 사람 누구하고 말하다가 어떻게 하면서 술 먹고서 얘기했다고 그러던가 “우리는 언제 자기 쓰고 싶은 글 쓰는가” 이 말 딱 한 마디 한 것 때문에 요덕수용소 15호 정치범 관리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최학수하고 둘이 잡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제일 유능한 작가들이다 보니까 유능한 작가들 잡아놓고 보니까 김일성의 위대성을 쓸 작가가 없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다시 석방하라고 했는데 현승걸은 견디다 못해 거기에서 목메서 자살 했습니다. 최학수만 나와서 지금도 4.15 문화창작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 정진화

특히 북한이 언론분야는 말을 한 마디 잘못하면 정치성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것을 저희들

이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범죄를 지으면 교화소도 가고 감옥도 가지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게도 재판 한 번 없이 그냥 갑니다. 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날 바로 북한말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온 가족이, 또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3대가 같이 가는 것을 목격하는데 북한에 살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김일성과 김정일한테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꽤 많았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이 관리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정진화

그것은 당연히 아는 것 아닙니까?

○ 장혜성

맞습니다. 알기 때문에 거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잡혀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불평부리고 싶어도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 운명을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정진화

북한이 공개총살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떠들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주민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히 제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저하고 가장 가깝게 상대하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앞에다 놓고 집단적으로 앞에 모아놓고 총살을 하는데, 북한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총살함으로 해서 나를 가깝게 알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죽음을 목격하면서 나는 사회와 당을 배반해서 저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자책감을 들도록 하는 게 북한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개 총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반인륜적 범죄고요. 북한 모든 주민들이 태어나서부터 '나는 태어나서 정치범수용소라는 데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각은 항상 알게 모르게 느끼고 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는데, 관리소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셨습니까? 고문도 있었고, 차별이라든지 비인간적인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 관리소들이 있다는 것 말고도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 장혜성

다는 몰랐지만 일부 아는 것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만 하면 일체 아무 남자나 여자 시집, 결혼 같은 것 할 수 없습니다. 다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을 잘하는 사람만 한두 명씩 뽑아서 표창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 결혼 이것 하고 다른 사람은 평생 남자로 나서 한 번 장가도 못 가보고 끝내 그 안에서 살다 죽어야 합니다. 여자들 경우에도 똑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은 소학교,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를 배워주고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배워준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탈옥하다가 잡히면 전체 사람들 다 모인 앞에서 들로 때려서 죽이거나 총살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군대복무를 할 때 같은 이런 무슨 군부대 최고 군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보초를 서던 사람들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보초를 선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누구누구 와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정진화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몰랐지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면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것이

라고 생각이 될 때는 ‘일반 경찰이나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엄청 때리는데 정말 죽을죄를 짓고 가는 사람들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그보다 훨씬 부당하겠지’ 하는 생각은 저도 해본 적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가해지는지는 몰랐고요. 다만 회령 쪽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그 쪽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일단 유사시에 한국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쉽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정치범 수용소는 폭발을 해서 그 안에 정치범들은 다 죽인다는 그러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 들어 봤습니다. 폭과 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 정진화

저는 1980년대가 제가 ‘60년대부터 ‘80년대를 가장 북한에서 제가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라는 것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사는 데서 높고 낮음, 다시 말해서 부익부빈인비의 격차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산다는 것이 사회적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없이 정말 쉽게 말하면 거지나 부자가 따로 없고, 인생을 사는 데서 평등하게 산다면 그 사회는 사람들이 사는 최고의 이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사회는 자기들이 내세운 그 어떤 이상과 주민들이 실제로 사는 삶은 너무도 틀린 사회입니다. ‘80년대까지 제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지금도 외부에서 보이는 것은 무상교육, 무상치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북한에는 복지라는 말이 없지만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배려에 의해서 모든 주민들이 정말 세상의 부러움 없이 마음껏 배우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원하는 것만큼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삶의 거리와는 멀지만 ‘80년대까지 저희들이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3년 동안 공짜로 대학을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려면 입학금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그나마 ‘80년대까지만 해도 나라에서 굶어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처럼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 노동자를 줬든 기술직을 줬든 사무직을 줬든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안배를 해주고, 회사에 출근 도장만 찍으면 먹을 수 있는 북한에서 말하면 ‘배급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주고, 그

사회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보면 발전도 많은 저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창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많이 제고를 시켰지만 나름대로 그 사회가 지향했던 어떤 초연의 목적, 다시 말해서 '당과 수령의 배려로 우리가 모두 산다' 그 사회가 그때는 우리가 당과 수령의 배려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회에서 저도 일을 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일을 했고 그런데 그 사회에서 저희 부모나 제가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노력의 대가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는 어떤 보상으로 비친 것은 있지만 '80년대까지는 무상교육, 무상치료 이런 것은 저의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엄청난 많은 돈과 그런 게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80년대까지는 북한 사회가 그런대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그런 대로 그 바뀌가 제대로 돌아갔던 시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혜성

저도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북한 독재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어차피 이제는 북한이 갈 길이 따로 없습니다. 아직도 계속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나간다면 자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느끼지만 이제라도 나라를 개방하고 먼저 그 전에 핵을 폐기하고 나라를 개방

해서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해야 북한이 나름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지 이제 지금 상태대로 나간다면 불과 얼마 멀지 않은 날에 자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 최고 집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열차에 있던 승객들은 잠을 꼭 잤어야 했나요? 아니면 깨어 있어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나요?

○ 정진화

북한의 열차는 한국의 무궁화나 KTX처럼 열차가 일단 바뀌가 움직이면 모든 문이 차단되어서 승객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열차 모든 문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없어서 유리창이 열려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모든 유리창이 열차문에 달려 있다고 해도 출입문 도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북한의 열차는 모든 문이 다 열려져 있고 거기에 발판에도 사람이 앉아 있고, 심지어 열차 위에 지붕에도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모든 문이 닫히고 열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만도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상태면 열차가 하도 오래

가고 지루하게 가기 때문에 열차에 있는 승객들은 방송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열차가 워낙 소음이 세고 거기다가 열차 문까지 열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승객을 80명을 태우거든요. 더불어 160명 이상이 타고 있다면 정말 한 사람의 숨소리만 해도 그 열차가 엄청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열차에서 방송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소나 비세르코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언론과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언론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다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기관이 있었습니까? 언론을 누가 통제 했나요.

○ 장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언론은 원래 김일성 최고 독재자의 언론입니다. 다른 사람 일체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선전선동부라는 것이 있는데 당 선전선동부에서 최종적으로 다 통제합니다. 여기 당 선전선동부

에서는 8개 과가 있습니다. 영화과, 문학과, 신문과, 방송과, 보도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과면 일체의 북한 방송을 다 관장하고, 신문과면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민주조선 통일신보 다 관장하고, 무대과면 일체 무대 예술을 다 관장합니다. 이것을 다 하는데 해가지고 먼저 계획을 세운 것을 계획을 세워 와서 밑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 와서 김정일 최고 독재자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면 독재자가 사인을 하면 다시 그게 내려오는데 그때부터는 방침으로 넣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재 집필이 들어가는데 취재 집필은 최고 독재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게 다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 취재 집필을 하라는 대로 해야지 절대로 다르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쫓겨 나가야 됩니다.

취재 집필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들고 와서 기자가 글을 써야 합니다. 글을 쓰는데 3단계 결재를 받습니다. 부장, 부국장, 부위원장 3단계 결재를 받는데 결재에서 기본 내용은 최고 독재자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했는가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객관성이 있는가, 과학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장르적 특성을 살렸는가 이런 것은 다 둘째 문제고, 첫째는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을 갖고 3단계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3단계 결재를 다 받으면 검열도 또 3 단계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부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검열은 중앙방송 내부에서 조직된 검열단이 다 검열하는데 내부검열에서 도장을 찍어야 국가검열에 들어갑니다.

국가검열에서는 또 다 보고 기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 독재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됐는가 보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찍어주면 방송에 나갑니다.

나가면 또 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방송 나간 원고라고 해도 2개월 내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다 회수해서 검열을 합니다. 단 하나의 오자, 탈자 이게 있어도 집필자는 강제노동 같은 것에 나갑니다.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오류는 거의 있을 수가 없고, 그저 오탈자 이 정도 배치되는 것 몇 개월 정도 무보수로 돈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예를 들면 이러한 검열을 했던 사람들의 성함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혹은 이러한 역할들을 했던 것을 도표로 나중에 그 단계별로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 장혜성

다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하나만 예를 든다면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원고를 쓸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최고 독재자가 한 말을 먼저 모시고 그거에 기초해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위대한 수장 김일성 동지께

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하고 딱 빨간 줄로 줄을 치고 그 안에다가 김일성 말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실수해서 원고를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실수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고 해야 될 것을 위대한 수령 김일' 하고 성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깜빡 실수죠. 그런데 이게 쪽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국가검열에 가서 걸렸습니다. 국가검열에 가서 걸리니까 국가검열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더니 '너, 우리나라의 위대한 수령이 김일성 동지냐, 김일 동지냐?' 김일이라고 또 실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야 저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죠. '내가 실수했다. 한 번만 봐 달라.'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강제노동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기자들이 너무 글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강제노동 나간다고 해도 크게 창피한 일은 아닙니다. 대체로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수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데 3개월 내지 6개월씩 강제노동 하고 올라오고 이런 게 2번, 3번 반복되면 다음 번 1년 내지 3년 내에 한 번씩 기부 조절을 해서 내쫓아버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 1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일단 이 주체 이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공개적으로 그 개념에는 동의를 하지 않

지만 그냥 일은 그만두실 수 있는 건가요?

○ 장혜성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러니까 하고 계신 일이 있잖아요. 주체이론에 대해서 내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왜 이 자리를 그만 둔다 말하지 않고 떠나는 것도 괜찮나요, 일을 그만두는 것도?

○ 장혜성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합니다. 자기 구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기자를 하다가 '기자하기 싫다.' 하기만 하면 몸이 아프다든가 또는 다른 구실을 대야지,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그렇게 떠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러면 그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언론이라는 조직에서는 어떠한 저항도 허락이 안 되나요?

○ 장혜성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

도 못 하고요.

○ 소냐 비세르코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서 어떨까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도 거치고 했으니까 아마 북조선에서는 북한 상황이 나쁘고 뭔가 변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더 저항력을 갖지 않을까요?

○ 장혜성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뒤에서 생활할 때 서로 사람 호상 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지, 방송에서 글을 쓸 때는 단 한마디도 자기 생각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끼리 만났을 때 '이거 작은 놈'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 보고 흔히 작은놈이라고 하는데 '작은놈이 뭘 안다고 해서 나라 정치를 한다고 어찌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하고 옛날에는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개입 개방을 해야지 살지, 개입 개방 안 하면 못 산다.' 이런 식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을 할 뿐이지 방송에다 쓰는 글, 신문에다 쓰는 것을 절대 그런 것은 밝히지 못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러면 한마디로 1세대 지도자가 있고 2세대가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금 3세대 지도자, 김정

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랄까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해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그 정통성이나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주체, 마찬가지로 아까 100여 명의 탈북자들이 이 주체이론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주체이론이 뭐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걸까요?

○ 장혜성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서 황장엽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김일성은 중학교 1학년 다니다 중퇴를 하고 혁명을 한다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철학적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학문적으로 높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만들 정도는 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혁명 1세대, 2세대 하는데 혁명 1세대 만든 만주에서 학리를 하다가 소련에 들어갔다가 88국제여단에 있다가 북한에 들어간 사람은 전체 129명입니다. 129명도 지금 다 죽고 불과 살아있는 게 이을성이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이을성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지금 김정은이가 3세대인데 김정은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룡해, 오일정이 이런 게 다 3세대거든요. 이 사람들 자체도, 김정은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최룡해, 오일정 이 사람들 자체가 저 체제가 무너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러면 지금 김

정은이나 또 지금 측근에 있는 핵심 세력들, 이 사람들 저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더 인민들한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절대로 저 체제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에 힘을 입어서 저 체제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 소나 비세르코

그래도 일부 장군들이나 아니면 오랜 낡아 있는 지도자가 김정은을 밀어내고 정권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김정은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나서지는 않을까요?

○ 장혜성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 서로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모부 장성택이 있고 김경희 있고, 그 다음에 오일정이, 최룡해, 김정각 이 사람들 서로 다 경계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가 봐갖고서 어느 한 세력이 막강하게 크다 하면 그쪽 세력에 붙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다 세력이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선도하지 못하고, 특히 공보가 일어나야 되는데 공보 자체도 자꾸 인사변동을 합니다. 인사변동을 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지방에서 말하자면 실권을 쥐지 못하게 하고, 실권을 쥐었다면 그

주변에는 정보원들이 벌써 3중, 4중으로 다 포진 해서 그 사람이 일거일동을 감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각이다, 최통해가 ‘너, 오늘 최통해가 오늘 아침은 어디서 먹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저녁은 어디서 먹고, 누구하고 만나고.’ 이게 다 매일 보고돼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를 통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 정진화

북한은 권력이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게 한국처럼 대통령이 다르고 국방장관이 다르고 여당의 지도자가 다르고 또 국가안전정보원의 수장이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기구의 제일 수장은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 총비서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고, 국가안전정보기관이 자기가 총수장인 것을 보면 그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권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3세대로서 지금 추종됐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몇 년 동안 탄탄하게 정치를 해 오고 있는 원인이 지금 주민들 앞에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머리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스처 같은 것을 많이 김일성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은 김정일보다는 훨씬 크고

검증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능력으로써 북한 주민 수천만을 먹여 살린 것처럼 되어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이 만든 나라로 북한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오늘처럼 미국이나 한국에 맞서가지고 저렇게 홀로 사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김일성이가 위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지금처럼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기를 김정은이가 아무 능력도 없고 30살도 안 된 정치 지도자인데 과연 오랫동안 북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북한에서 살아온 제 생각입니다.

○ 소나 비세르코

그런데 김일성은 어느 적법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북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김정은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건가요? 지금 이런 나쁜 조건에서 그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데 지금 북한을 떠나시는 이후에도 많이 여건이 바뀌었을 텐데도 북조선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건가요?

○ 장혜성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사실대로 얘기해서 김정은이,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는 없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

해서 누구도 불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현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놈, 개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막 내놓고 거의 욕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많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지 못하지만 불과 얼마, 오래 가지 않아서 언젠가는 저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말하자면 민주주의체제가 들어가지 않겠냐. 민주주의 싹이 돌아나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진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성 시기가 북한에서는 가장 부흥 시대였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먹고 살고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또 학교에 가면 애들이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병원에 가면 나름대로 의약품이 있고 이런 시대였는데 '80년 후반부터 동구라파에서 유럽권이 사회주의가 다 붕괴가 되고 같이 북한이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그 당시에도 김일성 사망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홀로 사회주의라는 걸 지탱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낙상자가 발생하고, 탈북자가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그런 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발판을 딛고 서기에는 북한 주민들에

너무 영향력은 없습니다.

장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 자체가 자기만의, 우리를 독재자라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수령이나 지도자한테 어린놈이라든가 작은 돼지 이런 말로 표현하는 이 자체가 저는 북한 주민들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300명 아사자 발생하고, 정말 눈만 뜨면 공개총살, 추방, 정치범 수용소 이런 상황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저희들은 한번도 그런 욕을 못 해 봤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를 향해서 내부 그런 자기들의 감정을 표출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욕한다는 자체는 저는 북한 내부에서의 상당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자체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 있는 싹이 있다고 하면 지금 북한 체제가 그만큼 정말 어지러워지고 그 사회가 정말 변화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것은 정말 북한 사회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6중, 7중의 감시나 탄압의 그러한 장치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나지 못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그런데 이 분들은 기아라든지 억압이라든지

그런 수용소 같은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안 합니다. 반항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제대로 북한 주민들의 그 생각을 바꿔서, 사고를 바꿔서 일어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북한에서 여건이 바뀔까. 밖에서는 도대체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일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야 이게 가능할까요?

○ 장혜성

주석으로 일하려면 사실상 바깥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일 그런 위기가 조성됐던 것은 2010년인가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갑자기 화폐개혁을 하면서 그때 북한 인민들이 반발이 너무 강하게 그러니까 북한 내각총리까지 인민국 내세워갖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화폐개혁을 지휘했던 박재경이라는 사람은 총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심각하게 될 때였는데, 이런 일이 그때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점점 더 주기가 짧게, 빨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기는 외부적인 충격이 한번 확 들어가면 좋겠는데 예를 든다면 카터가 여기 북한에서 연변 핵기지에다가 폭격을 하자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폭탄 몇 개만 던졌더라면 사실 북한이 무슨 전쟁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큰소리

만 쳤을 뿐이지, 지난 2월, 3월 달에 다 봤지만 그놈들이 당장 무슨 정전협정 백지화한다, 뭐 어쩐다 했지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북한은 거의 이런 상태인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쾅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 한다면 지금 상태로 UN체제가 계속 한 쪽으로 가해지고 그러면 북한은 어차피 당장은 아니지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반항이 정말 말에 따라 높아가는 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정진화

그 체제 자체가 싫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범죄에 속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마음대로 자살도 못 합니다. 왜? 그 체제가 주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산다는 것은 그 체제가 나한테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상 안 해준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화폐개혁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몰로 만들었을 때, 또 이제처럼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부를 누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탄압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상인들의 돈을 정부가 빼앗는 다거나 또는 경작지를 이루어서 내가 정말 힘들게 산을 일궈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을 것을 해결했는데 “3년 동안 내가 그 밥을 경작을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다 바쳐라”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반발은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높아가고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저 사회가 저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탱된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저희들은 속으로 ‘아, 이제는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3대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3년 동안 꾸준히 그 체제가 그냥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탈북자로서 할 말은 없지만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그 내부에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 정부에서 자기네가 그것을 포기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회를 개방시킨다거나 이것은 저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를 포기하는 날에는 김정일 3대세습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주변에 술한 권력층들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하루아침에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3대, 4대를 내려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를 잇는 권력의 계승인데 사람이라면 그것을 쉽게 포기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 소냐 비세르코

말씀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정 선생님, 장 선생님 매우 재밌고 그리고 솔직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라든지 또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를 위한 정의를 위한 정보에 흐름에 대해서 정보의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어진 시간보다 초과를 했었는데 그렇게 초과해서까지 말씀을 할 수 밖에 없던 것이 해주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도 저희 쪽 언론, 헌법적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저희의 언론에서도 사실 저희도 유명인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중시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과연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증언들을 어떻게 보도할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언론, 더 많은 한국에 언론에서 오늘 두 선생님께서 증언하셨을 때 참석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께서는 북한에서의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

(재개)

○ 마이클 커비

이제 다시 COI의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모씨께서는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선생님의 성함은 본명이 아니지만 선생님은 한국에서 알려진 이름 티모씨 강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험에 기반해서 책을 쓰셨고 이 책은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복인데요.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책에서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티모티

번역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영어로 번역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가지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당시 선생님은 북한 출신이지요? 당시에 중국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가셨습니까.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연줄은 아버지가 만들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티모티

아버지 친척 분들이 다 중국 분들이셨기 때문에 '60년대 문화도 혁명을 겪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되지요. 할아버지가 북한에 넘어오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때 그 가족 분들이 중국에서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친척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은 거지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5번은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티모티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북송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왔다 한 것입니까?

○ 티모티

한두 번 정도는 북송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자원해서 북한에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이렇게 복송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까? 왜냐 하면 북한을 이탈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셨는지요.

○ 티모티

예. 일단 복송되면 북한에서 중국 감옥에 수감되게 되고 중국 감옥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북한에 넘어가면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보위부, 한국으로 말하면 안기부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경찰 되겠는데 북한은 그것을 지금은 보안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안전부였지요. 이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하게 제가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일 때는 927상무, 나중에는 그게 927에서 2133으로 바뀌게 됐는데 하나하나 수감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러면 북한에서는 가혹행위를 경험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거나 고문을 당해야 했거나 아니면 가혹한 행위가 결여된 조사를 받거나 그런 일들을 겪으셨는지요.

○ 티모티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일단 몸속에 돈이 있는지 돈을 수색하기 때문에 앓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었고요.

제가 감옥들을 해보니까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떤 감옥들을 말하나 하면 보위부, 구류장, 보안사 구류장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수없이 많이 거쳤는데 개수로 해보면 1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고문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굶기도 수없이 시키고, 그리고 때리는 것도 북한에서는 군화가 있는데 러시아식 군화 혹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창이 엄청 두꺼운 것. 그런 걸로도 때리고, 없으면 팍자라고 해서 팍자로 때리는데 팍자가 끊어지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면 손이 아프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손으로 막 때려요. 때리다가 아프니까 때리고, 팍자가 끊어지면 구두 그걸로 때리고. 그래서 지금도 머리 이렇게 보면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의 고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마이클 커비

기독교와의 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면 먼저 아버지가 시한으로 가서 지하 교회에서 기독교를 배우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39명의 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복송 당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티모티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아버지는 언제 복송이 되었고, 당시 티모씨 씨는 몇 살이었나요?

○ 티모티

제가 소식을 들었을 때는 2003년도 되었으니까 아마 그 일이 진행된 것은 200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2003년 되니까 15살 정도 되나요? 15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됐나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아버지의 도움 없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나요? 기독교를 접하게 됐나요? 어떻게 접하게 됐지요?

○ 티모티

일단은 중국에서 중국 친척들이 지금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삼촌뻘이 되시는 분 목사님이었고, 그 삼촌의 할머니가 교회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척집에서 친척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고 해서 손잡고 같이 다녔

고, 그때 당시 교회에만 다녔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들을 이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게 된 후로 이제 사실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위부로부터 복송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고 그리고 요덕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들었죠?

○ 티모티

아버지가 그랬지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서한이라는...

○ 마이클 커비

그리고 요덕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것이 맞나요?

○ 티모티

예, 맞습니다. 아버지가 갔던 곳이 서한에서 잡혀가지고 복송된 후 아버지가 간 곳이 요덕수용소로 가셨고요.

○ 마이클 커비

아버지는 39명의 북한 기독교인들과 복송이

됐는지 아니면 혼자서 복송이 되었는지요.

○ 티모티

같이 복송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북한 내에서는 종교를 믿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합법인가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나요?

○ 티모티

사실 북한에 교회 있다는 것은 중국에 있을 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는 들었는데요. 사실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김일성을 신격화한 김일성을 종교화한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허용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 제가 말하는 기독교 예수라든가 아니면 그 기타 등등의 그러한 종교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북한에서는 영화에서 비화 시키면서 선교사님들이나 그러한 것들은 미국의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편이다, 아편과 같은 것들이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회주의를 좀먹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오히려 세뇌시키면서 종교에 대해서는 배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는 종교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

다. 그런데 북한에 아시다시피 칠보교회, 봉수교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외화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정치학교 외교학부 그런 기독교 학과가 종교학과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사나 스님이나 이런 것도 배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당성이 투철한 사람이라야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외화별이 수단으로 칠보교회나 봉수교회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에 많은 분들이 남한으로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많이 내려오셨지만 내려오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대를 이어서 끼리끼리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들 접할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중국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훈련 받아 다시 재입북 해서 북한에서 아주 소규모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얘기 나누게 되지만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 했던 한 사람이거든요.

○ 마이클 커비

아버지는 요덕 수용소에 갇히셨는데 선생님은 어디로 보내졌습니까? 왜냐 하면 티모티 씨는 당시에 아주 어린 10대 미성년자이었지요?

○ 티모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성인이었다면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정치범 수용소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친 아버지였다면 또 북한은 출신 성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친아버지였다면 저 역시 정치범수용소에 직행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새아버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으로 18살 미성년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함흥 영광에 있는 55노동단련대에 만 1개월 형을 받고 수감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신의주 보위부나 이런 보위부 생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8개월 동안 제가 북한에서 일명 똥간이라고 하는데 구류장 생활, 감옥 생활보다도 더 힘들다고 하는 구류장 생활들을 8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네 번째 복송 될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1년 8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족 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계실 때 노동단련대라든지 그렇게 감금이 되었을 때 구금장에 있었을 때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나요? 가혹한 처벌을 받으셨는지요.

○ 티모티

일단 구류장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구류장 안에는 살아있는 지옥이지요. 정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로도 그게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도 남경남경이라는 난징난징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일본에 대한 모욕감을 가졌었어요.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살상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라고 했었는데, 북한에 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일본 놈들보다 더 악독한 그러한 모습들을 봤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일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성성이 모습 같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뼈의 가죽만 씌운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이잡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충격적인 데에다가 들어가서는 김일성을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한 달 동안 암송을 시켜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조 1항부터 족 해서 10항, 줄줄 다 외워야 해요. 그래야 감옥 생활할 수 있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되는. 그래서 김일성을 신격화 하는 그런 세뇌 교육들을 감옥 안에서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나오게 되면 반으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송토반이라고 해가지고 도강제들, 도강제라고 하면 중국을 탈북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반보다도 더 엄격하게, 왜 그렇냐 하면 이 사람들은 좀 느슨하게 하거나 교육에서 단련이 안 되면 다시 사회에 나갔을 때 또다시 탈북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되게 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교시, 김일성이 말하고 김정일이 말하는 것들을 교시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꺾이는 해라고 하지요. 5, 10 이런 해마다 대사령이라고 감옥 연수를 감량 해주는 그런 대사령이라고 하는데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탈북하는 탈북자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수 없이 죽어나가는 것은 부류가 있는데 결국 탈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반이 8개 반, 1과, 2과, 3과라고 되어 있는데 1과 같은 경우는 저처럼 초범자들 되겠고요. 그리고 1반, 2반 같은 경우는 기술자나 농산 그런 죄수들을 따로 가두고, 3, 4,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루고, 7, 8 같은 경우는 도강제, 탈북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2과라고 되어 있는데 2과 같은 경우는 상습범, 여러 번 들어온 사람을 집어넣더라고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언제 나가는지 모르지요. 이 사람들이 담당 경찰들이 있는데 그 경찰들이 “이 사람은 개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들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3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언제 집에 나갈지 모르고. 정말 북한은 교화소도 있고 감옥도 있고 꼬빠꾸라고 해서 6개월짜리, 1년짜리 단련대도 있는데 정말 북한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요. 영광군이 얼마나 지독한 데인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 나가는 데인지. 그래서 영광군에 갔다 왔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는 게 기적이구나’ 할 만큼 정말 그 안에서는 살아있는 지옥 같아요.

○ 마이클 커비

거기에서 먹을 것은 어땠나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 티모티

일단은 거기에서 밥을 주는데 ‘가다밥’이라고 합니다. ‘가다밥’이라고 하면 혹시 덩어리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손으로 집는데 북한에서 콩 150알 정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룰이 있어서 죄수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을 콩 150알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것들은 도적놈들이 만드는데 도적놈들이라고 한다면 죄수들이 결국은 그 밥을

만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밥을 만들기 쉽게 아침에 밥을 죽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죽을 밥 단지를 찍는 석탄기계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찍어서 나서 시키면 결국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릇마다 하나씩 얹어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물을 약간 붓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스프르 사그라져서 풀어져요. 한 그릇에 절반 정도가 되니까 몇 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조미료나 고기나 일체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주는 5술가락 정도의 그러한 옥수수로 빵은 식량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영양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일은 아침에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시키는데 일은 힘들고 그리고 정신적 노동도 강하고 육체적 노동도 강하고, 먹는 것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서 자랄 때 혹시 김씨 일가, 김정일이 되었던 김정인이 됐든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이라든지 충성심이라든지 그런 좋은 감정이 있으셨나요?

○ 티모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어떠한 혜택을 많이 받아서 북한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 존경심이나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 때는 고난의 행군이 닥치게 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수없이 죽을 뻔 했고, 식량이 없어서 결국 썩이나 돼지풀 토끼 풀 같은 것을 뜯어서 식량 대체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TV는 내나라 노래 나오고 내나라 살기 좋다고 나오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공경한다, 이런 것은 저희 또래 친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윗세대 같은 분들은 그런 시대 이전에 어떠한 향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티모티

사실 어떤 국가라고 한다면 어떤 그 국가는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는 법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법으로 인해서 결국 빈인빅부익부 정말 최소한의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법이 존재를 하지만 결국 법이 법이 아닌 결국 법 위

에 어떤 수령 절대화 하는 키미니즘 결국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을 어떤 우상화하는 그들을 신격화 하는 그런 것으로 모든 체제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이나 국가나 국민의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러한 정권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강제국들이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서 이번에 제가 봤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면서 북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인데 현재 북한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말 저는 그것 하나하나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울었냐 하면 그때 당했을 유대인들을 보면서 울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도 당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니까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에 알리고 앞장서지 않으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런 정권은 저는 정말 반대를 합니다.

○ 마이클 커비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이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정권에 대한 정치 수용자들이 있고, 집시도 있고, 또 여호와 증인들이고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 티모티

예,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 표시들이 있는데 표시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그때 지역에 독일이 다스리던 그런 다양한 분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렇게 처형당하고 또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혹시 북한에서 교육 받을 때 유럽에 이런 수용소에 대해서 혹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지어진 유럽의 그런 수용소에 대해서 북한에서 자랄 때 배우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한국에 오고 나서 알게 되셨나요.

○ 티모티

일단 북한은 북한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가르친다고 해도 미국에 대한 이미지나 자본주의의 산물, 길거리 나갔는데 강통 들고 있는 거지라든지 정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하는 폭동이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걸어놓고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결국은 저렇게 살아가 모습들이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세뇌화 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지요.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이나 다큐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고, 실제

적으로 가서 보니까 책으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끔찍함이 있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혹시 중국에 있을 때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셨나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 티모티

일단 중국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셸터라고 하지요. 일단 그러한 곳에 저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성경만 읽어야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사실 차
별 받기보다는 정말 그곳에서 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북한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바
로 알게 되었던 인식의 터닝포인트와 같은 그런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
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는 북한에 살 때는 막연하게 '이 정권은 좀 나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왜 나쁜지를 성경
책을 통해서, 또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옳은
것을 좋은 것을 알고 나니까 나쁜 게 어떻게 나
쁜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고 그래서 얻
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티모티

사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이 많이 가보고 탈북민들이 말하는 말들을 많이
무시를 하거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이중
적인 모습인데 북한의 법으로도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떳떳하게 가치적으로 칠보
교회나 봉수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가끔씩 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강
단에 세우기도 하니깐 많은 분들이 "그것도 교회
이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게 만
일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들이 중국에서 살
다가 북한에 북송돼서 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
원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숨어서나 몰래 신앙들을
전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와서 이곳에
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이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 제가 책을 낸 제일 첫 장에 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수없이 많은 형들 중에 한
형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서 저한테 "너가
만약 살아서 나간다면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
려 달라"고 했던 그런 약속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것이고,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종교적인 발언은 다른 인권적인 발언하고 다
르게 북한에서는 이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럼
에도 제가 이곳에 와서 하는 이유는 그 형하고의

했던 약속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지요. 그러면 만약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허용이 된다면 그 사람 정치범 수용소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고 그 형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이후는 보장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형들이 중국에서 훈련 받아서 북한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 형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형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 무조건 나오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못 나온 형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형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전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정말 북한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말만 꺼내도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거나 아니면 즉결 처형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종교의 뿌리는 자를 수는 없는 것인데 결국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김일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살려주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회가 인간에게 자유의 종교

의 자유가 없고, 선택의 자유가 없고, 정말 그렇게 사람을 짐승처럼 짐승보다도 못하게 하고 학살하고 죽이는 사회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에 제가 남한에 와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계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인들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마이클 커비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기독교 믿음이 북한의 정치 질서에 반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티모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를 왜 싫어하나면 일단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를 하시면 그게 왜 그런지를 알게 되실 텐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은 북한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결국은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자기 주목을 믿어라' 그게 어떤 주체의 개념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주체사상의 어떤 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자기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 자기가 누구냐,

그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 것이라고 북한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전체라는 의미에 어떤 포커스를 둘 텐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전체는 하나를 위해요. 결국 하나가 누구냐, 그게 수령이라는 거지요. 수령을 위해서 전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 마이클 커비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종교가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반대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종교와 정치가 따로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티모티

일단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사실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결국 종교라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결국 통치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스스로 거듭나야 되고, 결국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행위들인데, 그래서 결국 모든 교회에서 핵심은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지요.

그래서 북한은 다 거짓으로 꾸며진 나라이고 가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어찌 보면 진리로 인해서 거짓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거짓들이 결국은 금방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종교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종교 생활을 하시면서 불교 신자나 아니면 이슬람 신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는지요. 이 분들도 분명히 박해들을 받으셨을 텐데, 이 분들을 만나신 적이 있는가요?

○ 티모티

일단은 못 만났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기는 했었는데, 불교나 이런 분들은 못 만났고요.

○ 마이클 커비

그런데 결국은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기독교 아닌가요? 저희에게 하신 말씀 말고도 저희에게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 티모티

북한에 어떠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지금 지속화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다단계, 결국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위에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저는 제 삶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 사람을 위해서 떠받들고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평양에 있는 300만 중심으로 되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북한에서 말하는 강성대국을 실현 시킨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 북한에서 보여주지 않는 북한 이거든요. 그것은 평양이 어떤 저희가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증명들을 해주셨을 텐데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평양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출신 성분, 결국 당성이 일명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당성이 투철한 사람들 중심으로 진행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평양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중심으로 북한이라는 결국 공산주의, 극단적으로 상극으로 얘기하면 유토피아가 될 텐데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에서 살아왔을 때는 그러한 이념과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과는 별도로 지방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북한이 자본화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결국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나라는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굳이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평양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유 민주주의의 선거,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북한을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티모티

종교는 반드시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처럼 불교도 있을 수 있고, 기독교도 있을 수 있고, 가톨릭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봅니다.

○ 마이클 커비

대단히 감사합니다. 티모티 선생님.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몇 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티모티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셨고, 고문도 경험하셨습니다. 저희는 티모티 선생님이 겪으신 고통스러운 일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선생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티모티 선생님께서 통일에 대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면 선생님을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하신다면 선생님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처벌받기를 원하십니까?

○ 티모티

북한의 어떤 시스템이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은 정말 가득합니다. 한데, 그게 피해보상 받는다고 받아지나요? 제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북송 외중에 동상입어서 돌아가시고 저희 가족이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서 부모 없이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보상이 됩니까? 저

는 그냥 보상받지 않는 게, 그리고 오직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북한이 하루빨리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게 제가 보상받는 길인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감사합니다.

○ 소냐 비세르코

대부분,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한 데 있어서 교회가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선교를 하실 때 북한에서도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종교를 가지면서 계속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종교가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 티모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식량도 도와주고 인도적 지원이나 다양한 도움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미라나 다양한 것들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 가는 것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들이나 그래서 저는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절반, 50%를 차지하는 것

은 그래도 종교가 아닐까. 종교의 힘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 소나 비세르코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티모티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선생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인생에 큰 행운이 있기를 빌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A 선생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선생님,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 선생님,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서는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던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저희에게 들어주실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 Mr. A

네,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북조선에서 태어나셨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특권층이셨고 선생님의 가족은 노동당의 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Mr. A

네,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북조선을 2004년 5월에 떠나셨고요. 이후로 남한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남한에 언제 왔습니까? 그 날이 언제였죠?

○ Mr. A

2004년 6월에 북한을 떠나서 한꺼번에 왔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쪽에서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 Mr. A

저는 북한에서 낳아서 자라고 북한에서 9년제 고등의무 교육을 받고, 북한군 10년을 복무하고요. 전역 후에는 북한에서 배치하는 공장에서 일을 좀 하다가 사리원 약대라고 있습니다. 사리원

약대에 한 2년 정도 통신으로 의학 공부를 좀 하고요. 그 후에 한국에 올 때까지 약을 다루는, 말하자면 한약을 다루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종교에 관심을, 특히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처제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맞습니까?

○ Mr. A

네,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그 처제를 통해서 그 처제가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맞습니까?

○ Mr. A

거기 그 문제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제가 아니고, 제 친동생이 종교 기독교라는 이 죄명을 쓰고 북한에서 반동사상에 걸려가지고요. 북한은 김일성의 사상 이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거든요. 13년 형기를 받고 함흥감옥에 갔다가 북한 감옥은 먹거리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영양실조가 온 것을 제가 함흥감옥에 가서 동생을 감옥 측에 돈

을 넣고 병 치료라는 명목으로 살려 내왔지요. 그래서 나온 후에 병 치료를 한 3개월 정도하다가 도무지 동생은 북한에서 더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왜냐 하면 북한 법에 따르면 북한 사상을 버리고 기독교 사상으로 나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 갖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생을 살려야 되니까 중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는 하도 급하고 하니까 동생을 살리겠다는 마음에 동생을 등 떠밀어서 중국으로 보냈지만 그 훗날에 제가 동생이 없어진 책임을 저한테 올 생각을 못한 거예요. 동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만, 생각이 갔지 후에 동생이 없어지면 안 되는구나.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나오겠는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 갖고 제가 동생을 중국으로 보낸 다음 북한 안전부 쪽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처제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요? 처제는 수용소에 보내졌고 상당히 가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제는 언제 수용소에 보내졌나요?

○ Mr. A

그것이 처제가 아니고, 저희 친 누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 마이클 커비

네, 이제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고요.

자, 그렇다면 누님이었나요, 아니면 여동생이었나요?

○ Mr. A

누님이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었고, 감옥에 일반 범죄로 13년형을 받았습시다. 그것이 맞습니까?

○ Mr. A

누님이 아니고요. 저희 친누이 동생이 성경책을 갖고 자기 친구한테 전파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안전부에 막 들어가 가지고 13년형을 받은 거죠.

○ 마이클 커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붙잡혀간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Mr. A

제 누님께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마이클 커비

교화소로 끌려간 누이 말입니다. 일반 범죄로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13년 구형을 받은 그 누이가 있었죠.

○ Mr. A

예, 예.

○ 마이클 커비

그러면 3년 이후에 거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갔던 그 누이가 똑같은 사람입니까?

○ Mr. A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 마이클 커비

3년 이후에 굶어 죽을 뻔한 누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녀를 중국에서 보내셨어요. 맞습니까?

○ Mr. A

예.

○ 마이클 커비

왜 굶어 죽을 뻔했죠? 배급이 충분하지 않았나요?

○ Mr. A

배급이 북한이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이라 하

고 길가에는 정말 버려진 아이들도 엄청 많았
고요.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 아마 눈 뜨면 ‘동네
의 집에서 누가 굶어죽었다.’ 이런 말이 계속 들
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일을 다니는 공장
에도 굶어 죽은 사람들 시신이 널려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없으니까 그냥 산에 갖다가
몰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북한이 식량난으로 ‘98
년, ‘99년, ‘97년 이 3년은 그 전부터 힘들었지만
이 3년은 특이하게 식량이 고갈돼서 배급을 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생겼거든요. 그때
있던 일들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

○ 마이클 커비

누이가 풀려나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
나요?

○ Mr. A

예.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갔었지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갔는데 북한도 감옥에서 병 치료 받으러
나오면 해당 안전부, 말하자면 여기 말로 하면
경찰서겠지요. 안전부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전부 서류에 사인도 하고 손도장도 찍고 그렇
게 하고 제가 누이를 데리고 집에 가서 병 치료
를 한 3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 마이클 커비

나이 많은 위에 있는 누이는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에서 2004년 7월 복송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나이 많은 누ियो. 윗누ियो.

○ Mr. A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리고 보위부의 이는 사람을 통해서 누이가
조사를 받았다고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요덕수용소 15호에 갇혔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Mr. A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 누이는 2년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누이
의 소식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
습니까?

○ Mr. A

예, 맞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 누이가 왜 요덕으로 보내졌다고 생각을 하
십니까?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국경을 넘었기 때
문에 보내진 것인지, 아니면 누이가 기독교 활동
을 했기 때문에 요덕으로 보내졌다고 생각하는지
요. 왜 요덕으로 보내진 것인가요.

○ Mr. A

중국까지는 북한에서 같은 사회주의 나라고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가까운 조건도 있겠지요 북한에서 중국까지 나간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까지는 안 보냅니다. 그러나 그 이상 국경을 넘을 때, 예를 들면 한국으로 가려고 기도했던가, 북한 법규에는 한국 기도라는 문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살기 힘들어서 죄를 짓고 국경을 넘었으니까 또 북한 국가에는 죄라고 인정 되는 거고요. 또한 그 과정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한국을 가는 길목에서 지금 몽고 국경을 넘다가 체포 됐거든요.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 되었는데, 바로 북한에서 '한국 기도다'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릴 수 있나 제가 전화로 북한에 전화를 했거든요. 북한 쪽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한국 기도가 됐기 때문에 못 살린다.', '다른 죄명은 뭐냐 이러니까 '한국 기도와 기독교 문제가 두 문제로 이제는 너네 누님을 살리기 힘들다'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 친구가 제가 북한을 떠날 때는 안전한 데서 보위원도 있었고 노동당의 간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무조건 살려 달라, 한국 기도문 보위부에서 정치범 수용소 대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북한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소원이 보위부 취급 대상에서 안성부 취급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좀 열어 달라' 누

님을 살리려고요. 그러면 이제 누님은 보위부 대상에서 안전부 대상으로 넘어가면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뭐 함흥감옥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어디 자강도에 있는 여자 가족 감호가 또 있거든요. 그런 대로 가면 그러면 누님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너네 내가 돈을 보내 줄 테니까 그것 받고 누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라'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아마 북한 보위부에서 취조 과정에 매를 너무 맞아가지고 뇌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뇌졸증이 온 누님을 북한 보위부에서 그냥 치료도 안 시키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 버린 거지요. 그것이 아마 제 기억에는 2007년 5월 초에 함경남도에 있는 요덕수용소로 2년 전에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단은 풍이 왔으니까 정말 좀 약 안 칩 써주고요. 독 정치범 수용소도 갔으면 원이 없겠는데 이것은 동생인 제 자체가 누님한테 약 한 칩 못 써주고 인생을 마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제가 보지도 못하고 참 그 날은 매우 울적한 기분에 제가 정말 동네 술집에 나가 혼자서 술을 아마 한 3시간 마신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이전에도 선생님께서도 안전부에 체포되신 적이 있지요? 왜냐 하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안전부에 체포된 적이 있는 게 맞는가

요?

○ Mr. A

예.

○ 마이클 커비

그때 신문도 받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신문을 받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Mr. A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각목, 5cm, 5cm되는 그 각목으로 등을 아마 몇 십 개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는 나도 실신할 정도로 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이렇게 하니깐 매질하던 것을 멈춘 거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에 가서 뭘 했냐,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제교회회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생활자금도 받고 자금을 좀 받았으니까 성경책을 들여간 것도 내가 들여갔고요. 북한으로 들여간 거요. 그런데 애들이 우리 동생이 취조 과정에 감옥으로 갔던 동생이 취조 과정에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전부 참모장이라는 양반이 어느 한 보안서에다가 나를 잡아넣고 족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시를 한 거지요. 참모장이 자기 밑에 한국으로 말하면 지구대지요. 지구대에다가 잡아넣고 입을 벌릴 때까지 족치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 일로 침을 맞고 있어요.

오늘도 맞고 왔는데요. 여기 와서 오늘 저번에 촬영을 했는데 콩팥이 되게 안 좋다 하네요. 되게 안 좋단니까 그래서 그때 일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있는 거지요. 나는 북한에서 살면서 중국으로 간 것은 나라의 북한법을 어긴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려니까 먹고 살자니까 식량이 없고 나라가 쌀을 주지 못하고 술한 사람이 굶어죽는데 나도 처음에는...

○ 마이클 커비

그래서 북한을 떠나서 결국은 2004년 6월에 한국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어 가지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에 의료보험제도, 또는 건강보험제도인데요.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실 수 있을지요.

○ Mr. A

북한 의료보험제도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만...

○ 마이클 커비

예, 맞습니다.

○ Mr. A

의료보험제도라면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무상치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에는 무상치료인데 지금도 무상치료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무상치료에 맞게 약물이 준비돼야 하는데 북한의 병원 실정은 환자가 시장에 나가서 약을 자기 돈으로 사갖고 주사 맞는 것만 병원에 갖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무상치료입니까? 지금은 무상치료가 아니라고 봐야지요.

그리고 의사들도 북한에 있을 때 의사들하고 좀 가까운 직업에 있었거든요. 의사들도 돈을 좀 줘야 치료하는 것도 원활하게 잘 해주고, 돈으로 안 주고 그냥 약만 사갖고 와서 내 환자를 살리겠다고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지요. 김일성이 이전에 무상치료 제도를 내놨지만 무상 치료가 '90년대 들어 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마이클 커티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편 밀매, 북한에서의 아편 밀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Mr. A

예.

○ 마이클 커티

선생님의 개인적인 관련된 얘기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아편밀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불편하시다면 아편 밀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Mr. A

아편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북한의 '90년대 하반기 들어서면서 각 농장들이 여기는 개인하지만 북한은 농장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장들을 1개 분소씩 20명 정도라고 보는데요. 1개 분소씩 아편 분소를 세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그때는 저 것이 왜 아편을 분소로 나오냐, 이것 갖고 우리가 얘기 좀 했거든요. 술자리에 앉아서 북한에 말하면 간부 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왜 아편을 이렇게 심냐” 그러니까 어느 한 관리국 부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가 뭐라고 말하니까, 이번에 강성산이라고 북한에 정무원 총리까지 지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김정일한테 이야기를 해갖고 승인을 받았대요. 그 승인을 받은 것이 그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함경북도는 그 해에 하고 그 다음 해까지 아편을 대대적으로 합법화로 심고 진을 채취하고, 그것을 또 이제 관리국 창고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한 청진 나남에 가면요. 나남제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2차 가공을 해갖고 바다로 나가는 거지요. 바다로 나가서 뭘 하냐, 어떻게 바다에 나가서 아편을 넘기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것이 그것은 북한말로 하면 연락소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간첩들이지요. 연락 간첩들. 애들이 지금 일본해 쪽에 나가서 일본에 넘기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가다가 빠꾸 돼서 도로

들어오는 그것도 봤고요. 제가 아편 문제에서는 제가 또...

○ 마이클 커티

말씀만 들은 거지 실제로 눈으로 보시거나 직접 아시는 내용은 아닌 거지요?

○ Mr. A

아편을 한 번 함경남도 금독에서 함경북도 청진까지 운반을 한 적이 있어요. 운반한 것은 목적이 뭐였냐 하면 기업소에서, 기업소는 우리말로 하면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책임자가 하루는 저보고 사람을 7~8명 데리고 금독에 가서 아편을 사오라, 그러면...

○ 마이클 커티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께서 지금 아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저의 조사위원회에서도 조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편 문제는 바로 여기서 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과 그리고 누이 그 가족이 겪은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강제 복종 체포와 고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편문제는 그냥 접어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혹시 선생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는 것을 저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아편에 대해서는 더 이

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 동료들이 질문이 없으시다면 다른 증인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선생님, 개인적으로 경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1월 달에 군 보위부에 체포되신 건가요?

○ Mr. A

보위부예요. 보위부에 체포 한 번 되고, 한 번은 보안부에 체포됐고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2주 동안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조를 받을 때 종교를 포기하라고 강요를 하던가요? 그쪽에서 원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 Mr. A

그때 제가 종교 문제로 잡혔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 갖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에서 뭘 했냐' 이거를 대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중국에 가서 성경책도 가져오고 성경공부도 좀 하다가 왔다.' 이렇게 하면 바로 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무리 때 맞고 힘들어도 정당하게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

고 있었던 거죠.

○ **마르주키 다루스만**

그러면 그때 신문할 때 ‘기독교인이나?’라는 질문이 있었나요?

○ **Mr. A**

나를 파고들지는 못하고 기독교라는 데까지는 그거는 취조를 하지 못했죠. 그냥 ‘중국에 가서 뭘 했냐?’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사는 가정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돈이 어디서 났냐?’ 그것을 캐는 과정이었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종교적인 그 박해가 북한에 있다는 것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기독교가 실제로 박해되고 있다는 어떤 공식적인 증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 **Mr. A**

우리 북한에 살던 주변에 한 40세 되는 여성이 교회를 하다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보위부에 잡혀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잡혀갔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잡혀간 그 사건이 무슨 건이냐?’ 이러니까 ‘종교 문제다.’ 그때 아마 기독교 문제가 북한에 처음 퍼졌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때 기독교라는 게 옛날에 김일성 어린

시절에 김일성의 엄마 강반석의 종교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때 당시 기독교 교회를 지하교회 운영하다가 잡혀갔다 이런 것을 처음 듣고,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김일성이 기독교 아납니까?

○ **Mr. A**

저희가 북한에서 알고 있기로는 아버지는 숭실중학교 출신이고, 그렇고 어머니는 강반석 자체가 집안이 할아버지까지도 다 목사로 북한에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보위부나 보안부로부터 종교 때문에 신문을 받거나 학대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신문이나 이러한 문제를 종교 때문에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 **Mr. A**

저는 종교 때문에 보위부나 안전부의 심문은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는 한국으로 가야 살겠구나.’ 이 생각이 든 것이 종교 내가 들어왔던 그 성경책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내 목을 조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 내가 살던

안전부의 친구가 하루는 나한테 ‘너, 조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너 끝나.’ 이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나는 내용을 몰라.’ 이랬더니 ‘안전부 참모장이 너를 잡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제는 여기 있다가는 더는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에 자식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을 탈출했죠. 이상입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고맙습니다.

○ **마이클 커비**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Mr. A**

감사합니다.

○ **마이클 커비**

이 자리에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안 선생님, 윤 선생님, 이 선생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오늘 상당히 유익한 많은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증언을 들으면서 탈북자들의 증언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가위원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남근 교수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윤 교수님께 발표를 시작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남근**

오늘 일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북한인권 조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앉아서 계시면서 청문을 하시는데 대해서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우리 국민들은 COI활동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DVD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것을 찍은 것인데, 약 7분 정도 됩니다. 교화소에 관해서 7분 정도 그것을 본 다음에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 **마이클 커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DVD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도 이 DVD를 갖고 싶습니다. 끝난 후에 저희도 DVD를 보여주시고 이것은 저희가 증거물 S10으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제 DVD를 상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근

먼저 DVD를 상영하기 전에 이 DV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에 탈북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그리고 강제납북, 강제복송, 그리고 군국포로 납북자 등에 대한 증언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교화소 부분만 7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DVD 상영)

○ 윤남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기초하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들을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 마이클 커비

예, 괜찮습니다.

○ 윤남근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11년에는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서 지난 해 북한인권 침해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실시한 실태조사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2012년에 북한인권 침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총 사건수는 619건이었고, 그것을 분류해 보면 고문 및 비인간적 처우가 37.5%, 인신매매 및 성폭행 23.6%, 열악한 구금환경 15.9%, 생명권 침해 9.1%, 차별 3.4%, 이동의 자유 침해 2.4%, 사상과 표현의 자유침해 1.7%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식량권 침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비효율적인 집단 농장체제와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생산 요소 부족,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 재해 등으로 식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난은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과 맞물려 만성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수많은 아사자가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자의 약 2% 정도만이 식량 배급을 규정대로 받았고, 아사자를 직접 본 경우는 58% 정도, 그리고 87%는 의식주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UN아동기금 등의 후원을 받아서 북한이 최근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목은 2012북

한영양실태조사보고서입니다. 5세 미만 어린이 중 27.9%가 성장발달 장애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7.2%는 심각한 왜소증이라고 합니다. 4% 어린이는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도 북한은 매우 높습니다. 2010년 북한에 0~1세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5.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4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000명 당 33명입니다. 우리나라는 5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는 10월 이전까지 북한 주민 중 약 280만 명에 대해서 식량 원조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량배급 부족으로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 산 야초 채취, 텃밭 등에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지만 대처 수단이 없는 영유아, 노인, 환자, 시설수용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여기에 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가인위원회에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1990년대 중후반 신고인이 살던 10만여 명의 한주군 인구 중 약 2,000여명이 아사를 했다고 합니다. 청진역 주변에는 하루에도 4~5구의 시체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권 침해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생명권 침해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서 물론 형

법이나 다른 법에 처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체제 인사라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형법에서 사형을 선고 할 수 있는 범죄는 국가전복음모죄, 국가배반죄, 민족배반죄, 고의적 중살인죄, 국가재산약탈죄, 국가재산절도죄, 국가재산손실죄, 개인재산절도, 밀수, 불량행동, 매춘, 불법영업 이런 것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걸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보면 지난 2009년 화폐 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중앙당 계획재정 부장의 공개처형은 화폐 개혁으로 인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별히 명시적으로 위에서 얘기한 그러한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처형을 했습니다.

인권위가 2008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개처형을 직접 본 경우가 93%이며, 죄명은 반체제행위, 외부정보유통, 국가기밀절취및밀매행위, 인신매매 살인 등이었습니다. 공개처형을 직접 본 경우가 93명이었습니다. %로는 약 73%의 탈북자들이 공개처형을 직접 내가 목격을 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탈북자 특히 여성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국에 여자를 팔아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

수하게 우리 기준에서 보면 인신매매라기보다는 북한으로 탈북 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에 의하면 진정인의 형이 중국 공안에 체포, 강제 복송되어서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구금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출소 했다가 중국에서 자신을 만났다는 이유로 민족반역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1년에 접수된 신고에 의하면 1983년 요덕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주자에 대한 공개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며칠 전 인권위에 접수된, 최근에 접수된 사례에 나타난 교화소에서의 비밀 처형 형태를 소개하면 그 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와서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신고자는 전거리 교화소에서 3년간 노동반장을 하면서 성분이 좋아서 동료 1명과 함께 비밀 처형된 사망자의 시체를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98년에서 '99년 말까지 2년간 전거리 교화소에서 약 200여건의 비밀처형, 이것은 전거리 교화소에 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리를 했던 전거리 교화소에서만 200여건의 비밀처형이 자행됐다. 이는 '직위와 공모에 관계 없이 머리에 병든 사람은 짝 쓸어버리시오'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자에 말에 의하면 비밀리에 집행이 되는, 처형이 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월 3회, 적을 때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한 번에 5~10명 정

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개처형 뿐이 아니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채 비밀처형을 하고 있고, 이 비밀처형을 받는 사람은 재판조차 거치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비밀 및 공개처형은 로마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입니다. 2009년 인권위는 북한 정치범 수용 생활을 직접 경험한 17명의 탈북자와 최근 국내에 입국한 300여명의 탈북자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개 정도 운영되던 정치범 수용소는 최근에 5~6개 정도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인원은 약 20만 명인데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영양실태나 처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또 질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우리가 추산하는 20만 명 보다 훨씬 더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 월남한 가족, 지주, 자본가 계급 등 적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연좌제에 의해서 가족 중 1명의 잘못으로 이유도 모른 채 공식적인 재판 절차도 없이 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완전 통제구역이고, 또 하나는 혁명화 구역입니다. 완전 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동안 살아야 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혁명화 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의 기간 동안 거기 수용되어 있어야 되는지 정해진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면 출소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또는 자기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그곳에 같이 수감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2009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물론 인권위가 조사한 실태조사입니다. 2011년에 인권위에 신고한 인권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수용소 내에서의 인권 침해행위는 대체로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음식, 수면시간, 성욕 등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악한 생활시설에서 평생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인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소 내에서는 모든 생활필수품이 자급자족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량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폐결핵 등 그러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망률이 매우 높고요. 탈북자 중에 폐결핵 환자가 매

우 많습니다. 그것은 정치범 수용소를 떠나서 북한 전역에 걸쳐서 영양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듀오클라세스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처형 및 비밀 처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입니다. 물론 북한 헌법에 의하더라도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1967년부터 1970년경까지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성분 조사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계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접을 받는 대우를 받는 계층은 통치계급인 핵심계층이고 그 비율은 약28%, 그 다음에 당원이 아닌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이런 사람들 동일계층이라고 해서 약45%로 구성하고 있고, 소위 불순분자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대계층 27%입니다.

그 다음에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자의적 구금입니다. 사회주의 헌법에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국민을 구속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어서는 구금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복송된 한 여성은 몽둥이에 맞아서 실신

을 했다, 한 번씩 구둣발로 머리를 차일 때 마다 피가 뿜어져 나왔다, 얼굴이 붓고 턱이 찢어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 이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여행이나 거주지를 이동하는 사람은 당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간 여행은 도의 경계를 넘을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주지를 바꿀 때는 거리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허가증을 소지해야 되고요. 주민은 여행 약2주 전에 소속 직장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노력 동원과 사상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대로 있되, 이러한 틀은 그대로 있고 그냥 사람들은 떠나서 여행을 갔다가 잡히면 뇌물을 주고, 뇌물은 우리 돈으로 약 5,000~10,000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되어 있고요. 해외여행, 특히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취업, 건설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인데, 사상적으로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훌륭하다고 평가 받는 사람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이주도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주민들을 살기 나쁜 지역으로 강제이주 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강도, 양강도 등에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이런 쪽으로 많

이 강제 이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보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의 언론과 출판은 철저히 봉쇄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수령 유일 독재 국가입니다. 언론은 오직 노동신문, 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등만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외부 정보의 취득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그래서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북한의 공영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 고정 되어 있고, 그리고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봉인이 뜯기거나 망가지면 그게 하나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양한 정보가 유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량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스스로 변하려면 북한 주민들이 외부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인권위원회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2010년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정치, 언론인, 예술인 등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 8만~9만 명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6. 25전쟁 이후에도 강제납북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부를 지속적으로 납치해왔고, KAL기 비행기를 납치해서 승무원들 일부를 돌려보내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계기로 납북된 사람들이 총 3,835명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이 중에 3,318명을 돌려보내고 517명을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후납북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한 바 있고,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서 2007년 4월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다시 쓰일 예정입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서를 받으면 국가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그 문서는 저희가 증거물 S7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그리고 간략하게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문서가 있는데요. 이것이 영문본인가요? 그렇다면 이것이 증거물 S11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여쭙보고 싶은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는 상당히 많이 의심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것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의심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혹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는지요. 잘 들리십니까?

○ 안석모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업무는 완전히 독립돼서 있고요.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류의 양심이 더 이상 북한 인권 침해가 계속 자행되도록 놔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북한 인권 문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공조해서 인권 침해를 조기에 종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COI 조사를 통해서 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가 공유해서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북한 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믿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 이용근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기구의 성격이 UN에서 정한 파리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인권위는 거의 중국계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

다. 따라서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세경어선이라든가 각종 인권의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에 따라 우리가 의무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 윤남근

최근 북한 방송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노출을 했습니다. 우리 현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 북한이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그렇다면 그렇게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하고 계신지요.

○ 윤남근

보복을 할지 우리로서는 워낙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테러리스트 행위들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북한도 인권위나 또 인권위원회를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로서 당장 그런 어떤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근

아까 보여드렸던 다큐멘터리 DVD를 제작했

을 당시 북한의 대남방송인 언론매체 중 우리 민족끼리에서 인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스러운 그런 “벌초를 해 버리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인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마이클 커비

북한에서의 어떠한 인권유린 사례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발표하신 리스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COI가 중점을 뒀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남근

지금 COI에서 한 9개 분야로 나눠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 분야들이 지금 모든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의 생존권 문제, 식량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북한 스스로 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식량이나 지원 못지않게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독일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통신과 방송을 통해서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최첨단 통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나라에서 핸드폰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리고 다른 영상 시설들이 최첨단 수준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Jammer들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Jammer는 사실 굉장히 구식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기술적으로 이 Jammer들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생각했는지요.

○ 윤남근

북한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게 정확하지 않지만 한 200만대쯤 되는 것으로 듣고 있고, 모바일 폰이 100만대 가량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보급된 컴퓨터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국가기관 외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나마 휴대폰으로는 전화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정보나 교육을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라디오나 TV는 채널을 고정

해 놓고 보임을 해 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이는 순서로 하면 그것이 하나의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 한국의 방송이나 다른 외국 방송을 듣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단체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풍선에다가 여러 가지 외부 소식을 알리는 전단지들을 넣어서 바람에 날려 보내고 있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휴전선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 이용근

기술적인 문제를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쓴 것은 중도의 범위라고 굉장히 중도에 민주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모바일폰이라든가 이런 최근의 어떤 통신기기들이 위원회에 알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관련된 정보기관 등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곤란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TV 수신 발신 파일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
특 통신 분야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해결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
습니다.

○ 윤남근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탈북자들을 상대
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북자들의 한 20% 이상
이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간에 남한 방송, 또는
중국 방송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북한의 통신기기가 더 보급이 되면
북한에서 아무리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
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위성사진을 저희가 얻을 수 있었고, 그 위성
사진이 사실 저희가 조사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
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으면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제가 그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기가 어
려운 것이 어떤 위성과 같은 어떤 해결책이 있어
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터넷에 대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사실 한국에서 의지만 있다
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민감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김정은도 휴대폰을 굉장
히 좋아하고 휴대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
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같은 세
대는 이 휴대폰이라든지 이동통신의 중요성을 알
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남근

그런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남한
내의 어떤 정치적 사정도 상당히 사실은 복잡합
니다. 당장 우리 대북방송에 있어서 민간 시민단
체가 발사하는 전파를 우리 한국에서 쏘지 못하
고 저희가 듣기로는 중아시아 국가에서 쏘고 있
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도 갖고
군사적으로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북
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그런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국
내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
다.

○ 안석모

지금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인터넷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한
국의 휴대폰으로 다 전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북한에서 그것을 차단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그런 것이지 우리의 기술로써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비

제 옆에 계신 두 분께서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아실 건데요. 몇 달 전에 워싱턴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재단인가요? 아산재단에서 주관했었던 세미나였는데, 그때 다른 주제가 통일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대학하고 그리고 한국의 아산재단인가요?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석을 못 했었지만 제 동료인 코인 교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연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다뤄졌다는 것, 이 세미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인권문제였는데 그렇게 인권문제가 이 세미나에서 다뤄졌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또 아산재단에서 이 통일문제도 같이 주제로써 다뤘는데 이 인권위원회에 있으면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통일 후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 책임소재

를 묻는 것 저희 증인을 해 주신 한 분이 종교 때문에 박해받은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 분은 고문도 받고 정치범 수용소에도 갇혀 있다가 탈북을 하신 분이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 하셨다면 자기가 받은 그 고통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돌아가셨고 또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이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 한반도에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책임소재를 묻기 위한 과정이 과연 인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은 통일 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을 묻는 것은 통일 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기관에서도 이런 책임성, 책임소재 파악을 위한 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이 됐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정치 수용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5곳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용소에서 지금 비인도적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발표하신 그 발췌문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한, 그리고 이 수용소에서의 그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동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 식량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동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설로 만약에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를 하지 않고, 이 다섯 곳이요. 그리고 북한의 상황이 한마디로 집행능력이 약한 일반적인 제3세계의 국가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제3세계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북한을 그냥 법 집행이 약한 하나의 저개발 국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까지나 양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를 하는 한 이런 수용소들이 이 제도에, 그 체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게 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

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헌법적으로, 헌법상으로 또는 체제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인권의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후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요.

○ 윤남근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2011년에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일 후에, 독일의 예가 하나의 우리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하고 아주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일 후에 우리가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남북을 통합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의 어떤 통치자들에게 대해서 일종의 chilling effect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사망하거나 지금 탈북자들도 보면 신체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우리

정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통일이 되면 그 통일비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기서 직접적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범 수용소를 가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 내에서도 존재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 됐습니다만 현재 남한에는 약 2만 7,000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인권위에 직접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결국은 어떤 사연으로 탈출을 하거나 형기를 마치거나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권위로서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수용 인원에 관해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추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아마도 북한이 최근에 정치범 수용소를 축소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좀 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의 통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제3세계에 인

권보장이 안 된 다른 나라들 하고는 상당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의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이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정권 유지 수단으로, 형벌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권에 위협 요인이 되는 인사들을 특별한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 정권 유지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인권침해가 더 심각하다,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인권 침해하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석모

특별보호관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옛 소련의 군락과 아우슈비츠는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20만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강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지기 위해서 인권위원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COI 조사를 통해서 강제수용소를 부정하는 북한의 태도에 썩기를 박고 전 세계에 이 실상을 알려서 북한으로 하여금 하루빨리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르주키 다루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 때 1945년에 독일인가요? 1989년에 독일에서는 process가 없었습니다. 1963년에 독일에서 센터가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대한변호사협회 분들과도 만났는데 이 분들은 공개 처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정치범 수용소들이 존재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공개 처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윤남근

북한에 접근할 수도 없고 관련자를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탈북자들이 소수가 넘어와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이 너무 비인간적이고 잔혹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일까, 또는 북한을 배반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정부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런 말로 꾸민 게 아닐까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탈북자들 숫자가 2만 7,000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꾸며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한 것은 아닐 텐데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 마이클 커비

중국에서도 지금 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뭐가 좀 특이사항이나 하면 그 숫자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공개처형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개처형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윤남근

말씀을 드리면 중국하고도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은 뭐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군중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처형을 하는데 가족 중에 처나 가족들을 나오게 해서 처형될 사람을 조국의 배반자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하고, 그것은 정말 비인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처형을 한다는 것하고,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이든 형벌을 받았을 때는 그 재판에 대해서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단심으로 상소할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재판이 끝나자마자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 마이클 커버

통역사님들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통역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교수님, 안 선생님, 인 선생님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COI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COI의 공청회를 마치고 내일 9시에 다시 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